

儀旺文化

UIWANG CULTURE

창간호



儀旺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 표지그림

청 계 사

청계사는 청계산 중턱 청계동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제목위호

박 용 빈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서협)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안양지회(안양, 과천)
(현) 의왕문화원 서예강사 (2002년 10월~)

儀旺文化

UIWANG CULTURE

창간호



儀旺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의 왕 찬 가

노 영 수 / 원로시인. 1930년 경기 안양 출생 시인.
청포도 동인지 2집에 「정적」 발표

의왕시민에게 꿈이 있다.
남다른 꿈이 있다.

의곡면과 왕릉면이 합쳐진
협동에서 오는 번영의 꿈이 있다.

신비의 동산 청계산과 사찰
경기도 문화재 135호로 빛나는 복판각

흐르는 물을 한 곳에 이르게 하여
만든 백운호수

누구있어 백운호수라 하였는가
아름답다 백운호수

낭만이 있다. 백운호수
봄가을 사계를 즐기는 의왕시민

협동의 꿈이 있다
아 내일의 번영이 있다.



창간사

의왕문화원 원장 박용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의왕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53.46㎢ 면적에 13만여 인구가 사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녹색의 전원 도시입니다.

우리 의왕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목에 속해 있을 때 의곡면의 儀자와 왕륜면의 王에서 따온것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1895년 광주군에 속하였다가 1914년 광주군의 의곡면과 왕륜면이 통합하여 수원시 의왕면이 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화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입왕면의 9개 리가 의왕면으로 되어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로 승격된 역사의 고창입니다. 많은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하다 보면 아쉬운 것이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늘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저허들이 부족한 탓인지 행사 마무리 뒤에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레를 거듭 할수록 문화가족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 의왕시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되며, 개원3주년을 맞이하여 「의왕문화」를 창간하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왕문화」 창간을 계기로 의왕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왕문화」 창간호 발행에 힘조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하며, 「의왕문화」가 시민 여러분의 친근한 벗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데 고향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 사



광주문화원연합회 회장

이 수 홍

의왕문화원의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문화를 이루고자 「의왕문화」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진속에서도 지역의 전통문화 향답에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용허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은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필계산과 모곡산, 백운산, 오봉산 등과 백운호수, 왕송저수지가 있어 푸른숲, 맑은공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려대 충신으로 알려진 조운 선생님과 1800년초 선유박해 때의 순교자와 임재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전통문화를 지닌 의왕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앞으로 의왕문화원이 개발하여야 할 사업이 무궁하리라 판단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세계가 지구촌이 된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문화유산만으로는 문화국가라고 내세우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만이 갖는 독특한 정체감 위해 상징적 이미지를 표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로서의 문화적 자산을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지난 세기보다 한층 더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문화창조의 진인사 역할을 해온 문화원의 책무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발간하게 되는 「의왕문화」는 향토문화의 갈래리를 확대화 시키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 제고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의왕문화」 창간호가 발간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하신 박용허 원장님과 원재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마음으로부터의 칭찬을 보냅니다.

2002. 10. 15.

특 사



국 회 의 원
안 상 수

의왕문화원의 소식지인 『의왕문화』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왕시의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의왕문화원의 박용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탄생한 의왕문화원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동안 의왕문화원이 문화의 불모지인 의왕시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왕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개발,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수집보존,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등 험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왕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의왕문화』는 의왕의 문화발전과 더불어 의왕문화원의 문화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문화』를 통해 문화의 저변확대는 물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왕문화』의 창간이 의왕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의왕시민들의 '문화적 갈'을 현단계 향상시키는 든든한 『의왕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의왕문화』와 의왕문화원의 앞날에 부강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왕문화」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의왕시장
이형구

백한 희망과 기대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했던 한오년을 보내면서 「의왕문화」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어 13만 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시에 지난 3년동안 어려운 이견속에서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한 의왕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산실로 우뚝일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

아 오신 박용희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땀흘린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의왕문화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유적, 지방유래화관실, 지역의 미담사례등을 책으로 발간하여 의왕문화를 사랑하는 모든분들께 선보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받아오는 세태에도 의왕문화원이 문화 창달의 토대가 되어 우리시의 지역 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과감한 권장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 12. 10.

「의왕문화」 창간을 축하하며



의왕시의회 의장
김 오 국

「의왕문화」가 창간된다는 소식과 함께 축하를 부탁 받는 순간 저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시 승격 12년만의 큰일로서 지역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소식지」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의왕문화」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므로써 문화원 회원 여러분과 의왕시민 모두가 힘써서 모처럼 이루어진 지역문화의 박을 상상하게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 시군의 우수 문화 행정사제들을 많이 소개해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문화는 문화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문화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가치있는 삶이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왕문화 창간에 노력해 오신 박용하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왕문화 창간으로 의왕시 문화발전이 한층 더 전보하기를 기원합니다.

2002. 12. 18.

「의왕문화」 창간에 즈음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유 상 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간직한 의왕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의왕시민의 문화 창출 의욕을 고이 담은 「의왕문화」 창간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왕시민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각종 예술대회와 축제 등의 행사를 마련하는 등 의왕지역의 향토문화 계승 보존과 예술 진흥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왕문화원장님께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 전면에 파고드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변혁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학교육적 요령에 부응하여 학교교육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교육으로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 정체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바탕 위에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고, 세계화의 기본목표는 결국 우리 민족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의 정체성 교육은 의왕시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학습함으로써 의왕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긍지를 갖게 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왕시의 유서깊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의왕시민의 정서 순화와 자긍심을 높여 주고, 전통예술, 전시회, 예술행 각종 대회 등의 행사는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모전하고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화제있고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며,

「의왕문화」의 창간은 의왕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 예술인들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계승 알선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우리시는 청소년들에게 선인의 업과 훌륭한 문화행사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받는 직감스런 의열인 육성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의왕문화」의 창간이 의왕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삶의 삶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두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창립 회고사



창립문화원 이사
김진우

이황시에 문화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너무 다행한 일이고 마음이 즐겁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우리시만 문화원이 없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안되지만 10년된 타 문화원에 못지 않게 현재 많이 발전 필요하고 있는 것은 박용하 원장과 음정배 사무국장의 노고라고 평가되어 먼저 치하 하는 바이다. 실은 본인도 문화원 설립에 뜻을 두어 학급 심사시키고저 노력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다.

우리 의황시에 향우회 발기할 때 그 목적을 첫째, 도민회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추천하는 타 시군과 같은 향우회가 없어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둘째, 문화원이 없는 것도 애석히 여겨 50여명 서명 일인했으나 당시 법규가 건평 200평 확보조건을 만족치 못하여 지연되다가 50명으로 법이 완화되어 감상실 시장과 협의, 현 복지회관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학교가 고원, 덕산, 무곡 세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된 학교사를 발행코저

하는 세가지 뜻을 가지고 향우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래서 1998년까지 세가지를 심사시킨 셈이다.

즉, 현재까지 경기도민 장학금 80명을 추천신발하여 장학금 8,620만원을 지급하였고, 문화원을 창립할때 강시상 시장의 호응도 높지만 박용하씨를 맡기 위원장으로 하여 30여명이 누차에 회의를 가졌으나 현재 한곳에 몰릴 때는 과반수만 참석하게 되었고 법적 기준년도에 5,000만원 기금 형상이 어려워 본인이 리진호 덕산박물관장의 권유로 먼저 출연하여 시의 힘에 겨울정도의 기금을 제공하여 청사하였고 교육사는 고원, 덕산, 무곡 학교 각 동향회별로 하게되어 고원은 60년사를 발간했고 덕산 지역만 성현서당 옛 한하의 자취를 2,000여만원을 향우회할때 본인이 부담하여 국내유일의 재계있는 서당사를 발행하였고 뜻이 있는 애자들이 기금을 모아 기념비까지 세워 관광코스로 점차 알려지고 있다.

덕산중등학교는 2004년 3월 60년사 기념 책자 발행과 역사전시관을 마련 중이다.

더구나 금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국적복원사업 지시가 있어 성현서당을 한국 유일의 석담박물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국 31개중 10개 정도 선반 될지 모르나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시가 합동으로 결국은 성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조대왕 사초행궁터 복원과 학회의 사기박물관 등 계속적인 문화 발굴 복원에 힘써야 되리라고 믿으며 금번 '의왕 문화' 장관호 발간을 축하하고 올이겨 보는데 본 문화원 창립에 노고거 많았던 이사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으로 본 의왕문화원의 발자취

(2001~2002년도)



제1회 백운서예대전

심사위원 백암 김동열, 무곡 최석화, 소담 박종희,
노장 윤두식선생, 공도작품수 532점, 천장휘호를
거쳐 공개심사 모습 (2001. 4)



제1회 예쁜 우리아기 기록사진전

의왕시청 꽃뫾리장에서 예쁜 우리아가가족사진전
전시 (2001. 4. 18(수)~4. 22(일))



한민도 은인탐방을 문회원 이시남과 함께

(2001. 4. 20)



황수관 박사 초청강연회

황수관 박사를 초청하여 '신천리니면 술 맛
남는다'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실시
(2001. 6. 2)



제2회 인형드라마제

단오제 일행인 국악공연
(2001. 6. 25)



문암시민강연회

곧 사회에 내디딜 고3 학생에게 강연
(2001. 6. 7)



문암원 개원2주년 기념식

문암원 개원 2주년을 맞아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모습 (2001. 8. 29)



제1회 백문예술제 개막식

제1회 백문예술제 개막식 중 시민노래자랑모습
(2001. 10. 6)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문암원 3층 강당에서 전국노래자랑 예심 현장모습
(2001. 11. 23)



KBS전국노래자랑 본선

개원조형예술대학에서 본선녹화 후 송해씨와 함께
(2001. 11. 25)



2001 시민학생 백일장-인당초입원 3층 강당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시민학생 백일장 개최 모습
(2001. 12. 8)



제2회 녹색의향 사진 전시회 - 인당시청 박물관
시민 및 수강생이 참가했으며 박동하 원장의 축하 모습
(2002. 4. 13)



인원 문인 유덕 답사 - 경기도 광릉 수목원
회원 및 가족 150명이 참가, 광릉(수령대교묘)에서 기념촬영 모습 (2002. 5. 30)



제3회 인당디오제 - 고석체육공원
우리나라 고유 4대 명절중의 하나인 디오제
국악공연모습 (2002. 6. 15)



2002 유영선선생님 - 동국대학교 백운초교수 전장
"가성교육 이대로 좋을까?"란 주제로 특강을
들이 참가하신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 (2002. 8. 16)



제2회 백운서에대선 시상식
경기도민 시예 공모전으로 8000여명이 참가 많은
호응을 얻음 (2002. 8. 23)



의왕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의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 국도호반스케치 여행전'을 개최 (2002. 9. 28)



의왕시 문화유적답사

부곡동 민자묘에서부터 창계동 하우정당까지 천년기의 강의를 들으며 답사 실시 (2002. 11. 12)



제6회 의왕시 연극제 개최

백운고극예술연구회와 모곡산, 고척초등학교 참가 열띤 경연을 펼치는 모습 (2002. 11. 28)



제6회 의왕시 청소년음악제

본선에 올라온 13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을 펼친후 이형구 의왕시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모습 (2002. 11. 30)



2002 시민학생 백일장

수상자 45명의 시상식 모습 (2002. 12. 23)



의왕 문화학교 수련회 및 작품발표회

성인무용반 공연 모습 (2002. 12. 28)

의왕문화원 연혁

- 1999년 2월 23일 의왕문화원 발기인 창립 총회 (위원장 박용하)
- 1999년 5월 31일 의왕문화원 창립 발기인 총회
 원장 박용하
 부원장 김강호 이동수
 감사 박용일 이암수
 이사 23명 선임
 사무국장 음정배 임명
- 1999년 6월 19일 의왕 문화원 설립인가 서류 의왕시청 문화공보실 이관
- 1999년 7월 13일 의왕문화 복지회관 준공
 건물 2497.78㎡ (755.57평)
 대지 1651.㎡ (500평)
- 1999년 8월 6일 의왕 문화원 설립인가 (경기도지사)
- 1999년 9월 7일 의왕문화원 설립기금 5820만원 정기예탁
 의왕문화복지회관, 문화의 집 수탁 (의왕시장)
- 1999년 9월 29일 의왕문화원 개원

의왕문화원 연혁

- 2000년 1월 15일 의왕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수탁 (의왕시장)
- 2000년 4월 6일 평생학습관 인가 (경기도 교육감)
- 2000년 6월 29일 의왕의 창지개명과 의왕 땅이름 고찰 초청강연 (이홍환)
- 2000년 9월 29일 의왕문화원 개원 1주년
- 2000년 10월 20일 의왕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창단
- 2000년 12월 2일 「춘」 문화학교인가 (경기도지사)
- 2001년 6월 2일 신마랴 나면 살맛 납니다 초청강연 (황수관박사)
- 2001년 9월 7일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 2001년 9월 29일 의왕문화원 개원 2주년
- 2002년 1월 7일 의왕지역 관리록 제작
- 2002년 9월 29일 의왕문화원 개원 3주년
- 백두에서 한라까지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전 개최
- 2002년 11월 13일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의왕시 추진협의회 구성
- 2002년 12월 28일 의왕문화학교 수료식

차 례

- 창간사 의왕문화원 원장 박용하 5
- 축사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수홍 6
- 축사 국회의원 안상수 7
- 「의왕문화」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의왕시장 이형구 8
- 「의왕문화」 창간사 의왕시의회 의장 권오규 9
- 「의왕문화」 창간에 즈음하여 경기도군포교육청 교육장 유창성 10
- 창립 외고사 의왕문화원 이사 정진우 11



◀ 창간논단 ▶

- ① 正祖의 園幸과 華城 축성을 통해 본 의왕 사료에 대한 몇 고찰
이 명 규 (경기중부향토문학사학회장) 20
- ② 윤예원 신부와 애경강습소 리 진 호 (시인·우물지적박물관장) 40
- ③ 의왕의 문화예술 발전방향과 과제 조 창 연 (강남대학교·의왕시민모임) 50
- ④ 의왕의 전통문화축제 되돌아보기 박 철 하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55

- 의왕의 향토지 65
- 의왕문화원 임원 명단 67
-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명단 68

正祖의 園幸과 華城 축성을 통해 본 의왕 사료에 대한 몇 고찰

이명규 (경기중부향토문화사학회장)

I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찬란한 역사이건 불우한 사실이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오늘의 시점에서 비록 아쉬운 여운이 남는다 하여도 바꿀 수도, 또한 돌이킬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뜻으로 려어지는 말이다.

필자는 의왕 문화원이 개원한 지 3년여의 지음으로 삼간되는 ‘의왕문화’ 제 소략하게나마 의왕에 관계되는 사료를 다듬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광명의 기쁨과 함께 삼간되는 ‘의왕문화’의 지속적 간행을 중심으로 기원한다.

의왕에 관련된 사료 중 왕조실록 및 등속부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정조와 연관된 사료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지간의 의왕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정조 원행에 관한 사실도 적잖이 왜곡되어 있어, 본고를 통하여 의견 많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간행한다.

본고를 위한 자료는 정조 14후에 관한 『國幸記』 및 『國幸之即整理儀軌』(이하 『整理儀軌』로 약칭함)와 화성 축조에 관한 『華城威設儀軌』, 『日省錄』, 『承政院日記』, 기타 地誌 등이 주된 자료로 이용됨은 물론 필요에 따라 『領界上圖實測』도 아울러 원용하기로 한다.

II

정조는 즉위(1776년) 후 생현의 한을 다소라도 풀기 위하여 생父 사도 세자의 묘소의 園號를 永福 園으로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어 1780년(정조13)에 양주 배봉산(현 서울 관악동 서울서립대학교 부지 내)에서 영우원을 水原府 花山(華山)에 천봉하여 현릉원(顯陵園)이라 이름했다. 그리하여

이듬해 정조 14(1790)년부터 1800(정조 24년 6월28일)¹⁾(양 8월18일)일 승하)년까지 매해 거르지 않고 12차 원행을 했으니 요도로써 왕도를 보여 준 셈이다.²⁾

정조 원행에 관한 기록은 『國幸定例』와 『國幸乙卯整理儀軌』, 『日省錄』, 『承政院日記』 및 『朝鮮王朝實錄』 등의史料에 나타나 있는데 이들 史料를 통하여 의왕에 관계되는 중요 사실만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II-1. 사근창 행궁 [肆觀站 行宮]

『원행경례』의 '道路橋梁'條에 보면 창덕궁의 돈화문에서 國所 재실까지 여러 노경(路程) 이름을 들고 앞 노경에서 다음 노경 사이의 거리를 일일이 옛 거리 길이인 '里' 단위로 밝혀 놓았는데, 사근창 행궁(肆觀站 行宮)은

“肆觀坪 自院淵川二里 肆觀站 行宮 自肆觀坪 一里”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나자로원 입구 안 동내인 원골 앞 내 (나자로원 북에서 유현양행 방향으로 흐르던 내)에서 (남쪽, 수원방향)二리가 되는 사근내벌을 거쳐 다시 一里를 더한 곳에 행궁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을 바로 현 고천동 사무소 자리가 되는 것이다.³⁾

1530년 간행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 驛院조에 보이는 '사근내원(沙斤乃院)'은 현재의 의왕시 중심지인 淵川洞 사무소가 있는 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골' 마을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사실이다. 따라서 원래의 사근내라는 명칭은 현 시정 칠사 주변 마을인 안골 골우들은 들본 골사근내, 고골이, 통미, 양림, 오매이, 등치골의 모든 냇물이 합쳐지고, 여기에 원골 개울이 합수하여 '맑은내(淸川)'⁴⁾로 흘러가는 사근내(沙斤乃, 沙斤川)라는 개울로부터 유

1) 본고의 문헌 자료의 연, 월, 일은 판본 제 214호에 의거하여 일락은 1896년 1월 4일(승희 11월 20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고가 1896년 이전 자료인 관계로 승희 그대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양』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2) 정조 실록 정조 14년(음) 11월조에 보면 “정봉을 한 뒤에 이튿날로 신경을 받게 되니, 어란에야 사물없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 ... 이로부터 해마다 빠짐 없이 원행을 할 것이다(數次 還幸之後 初葉斯道 蓬軌深深 ... 自此每歲歲勤)”라고 하여 1790-1800 동안 대략 1회씩 원행하면 11차가 되나 실제로는 정조 21년(1797)에는 봄과 가을 두 번의 원행을 했으므로 12차 원행을 한 것이다.

3) 현 고천동 사무소 자리는 옛 사근 행궁이 있었던 자리인데 옛 행궁의 건물은 다마도 한일합방 후 '수원군 의왕면 사무소(1914.3.1.)로 사용하게 되면서 훼손된 듯하다. 이때 본래만 남겨두고 별궁 및 기건물들을 철거 없애고 본래는 수원군 의왕면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현 수원시 과감동 빅터당 마을에 수원군 일왕면 사무소(1936.10.1.)가 신설되면서 여기로 병합되어, 면사무소가 옮겨지고, 그 후에는 방치한 상태에 있었다. 고천초등학교 개교(1936.12.1.) 당시 1~4회(1학년~4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학교 건물이 신축되기 전 얼마간 1,3학년과 2,4학년이 합반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는 가을 방치되었다가 1963년(1월1일) 시흥군 의왕면 때에 이곳의 건물들 다시 개축하여 면사무소로 사용할 후, 이왕읍 사무소(1980.12.1.), 의왕시청 사무소(1989.1.1.)로 사용하다가 의왕 정사가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어 현재는 고천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4) '맑은내'는 일동천과 사근내가 합류하는 밑세천의 앞 내부터는 '맑은내'로 통칭하는데 이 내는 수리산 관

래된 지명으로, 내를 근거로 한 사근내 별관(砂斤內), 사근내원(砂斤乃院), 사근내 마을명을 낳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을명 사근내는 현재의 고현동 사무소 소재지가 이 부근 연도군 인가의 형성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게 빠른 속도로 마을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사근내라는 개울 주변에서 가장 중심적인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사근내라는 이름이 자연스레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예초의 개울명 사근내가 마을명으로 굳혀진 것이라 하겠다.

사근내 마을은 시흥 경유의 정초와 원행 길이 새롭게 정비되어 개설됨에 따라 그 이전의 과천, 인덕원을 경유한 자갈길→원골길은 점차 퇴안길로 되면서, 그곳에 있던 옛 사근내의 주석처와 숙박처인 '사근내원' 이름은 차츰 뜨락해져 자연적으로 폐쇄되고 그 대신 두 노장이 만나서 이루어진 곳, 바로 이곳은 부곡, 군포, 철계, 광주, 용인, 안양, 수원 등을 잇는 보인길(갈매길)의 중심지로 좋은 입지적 환경에 힘입어 일찍이 주막 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사근내 마을이 신흥 마을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근참 행궁은 사근내원이 있었던 곳에서 3리(당시 10리는 5.4km이므로 3리는 1620m)의 거리이므로 현재의 거리로 5리에 380m 정도 못 미치는 곳인 새로운 사근내 마을에 마련된 것이다. 이제 사근내에 마련된 사근참 행궁(肆觀站行宮)에 대하여 일언하고자 한다.

사근참 행궁에 대하여는 규장각 소장 8쪽 『화성행도』나 『원행정례』 및 『원행음요정리의궤』 어디에서도 대강의 행궁도조차 찾아볼 수 없다. 『원행음요정리의궤』에 나타난 '華城行宮圖'는 행궁도 중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건물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배치기 관순에 놓여오며, 상기 8쪽 병풍에 보이는 '시흥환어행림도'도 구체적인 건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건물 배치가 일목요연한 느낌이다.

현재까지 필자가 두루 살펴본 사료 중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밝힐 수 있는 사근 행궁에 대한 자료는 『남한지(南漢志)』(卷四 宮室조)와 『원행음요정리의궤(闕幸乙卯整理撰載)』(卷四 御駕조)에 나타난 '肆觀站'에 관한 기록이다. 우선 『정리의궤』 판본조를 보자.

肆觀站, 初上日出宮時禮停 十五日還宮時禮停 本刺開設於行宮北邊 庫倉補廬假家五間 宮人及車所 臺上以下供假假家五間 設爲舉行 行宮使格無違 戶曹舉行 即觀初一以下直三日出站。 5)

부록에서 용골, 당거리, 군포의 용학 등을 거쳐 경부 철도선과 나란하게 흘러 산본천과 만나는 '고현내' (이곳 물을 관동 열을 건너기 때문에 늘 흐림)와 만나게 되므로 (구 대한편찬 및 석기화학 근처에서 사근내에 지류인 맑은내와 합류) 대강치 의미로 사근내 물을 별세관 부근부터는 맑은내로 칭하고 다시 초안내와 맑은내가 합류한 후는 '안양천' 상류로 통칭한다. <군포사서(1969년) p.928 맑은내 p.918 초안내 참조>

5) 주원시 간행의 편역본 『원행음요정리의궤』의 사근참 편역은 오해되어 있음이 격려하여 본문을 필자가 올바른 번역을 위해 문역을 짚은 것임. 필자의 번역 문역에 초연해 온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와 전 한국대 이강호(李江魯) 선생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표한다. 특히 주 원행의 한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덕택으로 본고의 '사근(肆觀)', '유정(遊亭)' 등의 생소한 한개 지명에 대하여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었음을

위 기록을 좀더 분석해 보면 대체적 건물구도를 상정해 낼 수 있어 후일 行宮 복원 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본채인 행궁과 부속 건물인 수라간이 행궁 북쪽에 설치된 점으로 보아(‘水制閣設於行宮北邊’) 행궁은 수라간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다섯 칸짜리 가건물 두 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라간이요 다른 하나는 수행원들의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자리로 이용된 공계(供饋)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칸의 수라간은 분명히 행궁의 북쪽 고사(庫舍)를 보수하여 만들었으니 행궁과 수라간 배치는 남북 향해 ‘-’(한글 나은) 자형인데, 여기에 공계간 5칸이 어디에 배치되었을까 하는 점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우리는 먼저 이 다섯 칸을 수라간에 이어 한쪽으로 길게 연속된 건물의 구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음으로 수라간과 대칭되는 말하자면 행궁 남쪽에 있는 공계간을 지어 ‘|’(디귤) 자 모형의 행궁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궁 전후(동서)에 놓여진 5칸 가건물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본채 ‘행궁’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또 처음 경우는 한쪽으로 10칸 길이의 건물 배치라는 점이 안정감에서나 행궁의 안전과 보호면에서도 합리적 설계구도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둘째의 대칭적 구도로 행궁 양쪽으로 부속 가건물이 길게 배치되었으리라 추론하고 여러 문헌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다행히도 南崖記(二卷 宮室조)에

「瞻觀坪行宮在坪之殿路東。正宗庚戌建卽華城幸行時駐蹕所也。○有正堂別堂 左右庫舍 監首一人。庫直一名。」

이라는 귀중한 자료의 뒷받침에 의해 정조14(1790)년에 지은 행궁 건물의 전모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즉 본채인 正宮이 있었고 별채인 別宮이 또 있었으며 본채 左, 右에 각각 하나의 庫舍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경리의궤』에 보이는 ‘假家五間’ 두 동은 각각 左, 右로 길게 배치한 ‘|’ 자형 배치된 점이 거의 확실한데 별궁의 위치는 현재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이밖에 행궁에 관한 지형적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로 80세 이상되는 의왕시 트박이 재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몇 가지만 여기에 덧붙여 후일 의왕시사 연구에 기여코자 한다.

- (1) 행궁 둘레로 담이 쳐 있었는데 담 위는 기와로 이어져 있었고 더리는 헐어졌다(박용익, 김달수, 송순안)
- (2) 홀살문이 있었다. (박창서)
- (3) 대문이 있었다. (박용익, 박성현, 박창서, 류병철, 신영균, 정영진)

밝혀 준다. 오여된 부분은 ‘수라간을 행궁에 설치한다. 행궁 북면의 공계 처마를 보수하여 가건물 5칸의 궁인 및 본소 당상 이하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가건물 5칸의 기영에서는——’ 등에서 보면 原文과 너무 동떨어진 번역이던 점을 직감하게 된다. ‘수라간은 행궁 북면에 설치한다’를 잘못 읽어 ‘행궁에 설치하는’으로 타무니있게 오해되었고 ‘가건물 5칸의 궁인 및 본소 당상 이하……’ 등도 전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준다.

- (4) 대문이 길대문뿐만 아니라 본체인 행궁 건물에도 있었다. (김달수)
- (5) 한 아름드리 향나무가 행궁 본체 앞 남쪽 편에 있었다. (모두 보았으나 현두 제보자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모름, 박용익, 박성현 등)
- (6) 본체나 대문 등의 기둥은 원형(원목) 기둥이었다. (박용익, 김은중, 박성현, 박재현, 이용철 등 모든 제보자)
- (7) 길대문 안 바로 북편으로 보조막이 있었다. (박용익, 박성현, 김달수)
- (8) 행궁 뒷편 공간이 있었으며 이 공간 저형은 경사가 쉼 있었다. (김달수, 송은안)
- (9) 행궁 본체만 있었다. (김구석, 박용익, 유병철, 박재현, 윤덕창 등 다수)
- (10) 행궁 본체와 행랑채가 있었다. (김달수)
- (11) 건물의 매치는 'ㄷ'자 형이었다. (이형상, 김달수, 송은안 등)
- (12) 현판이 있었다. (박정서, 최동진, 9)
- (13) 본체 바닥은 마루이다. (박재현, 윤덕창, 김구석, 이필호 등 대개의 제보자)
- (14) 우물도 있었다. (박성현)
- (15) 주춧돌이 원형이었다. (이용철, 김달수, 김은중, 김구석, 유형규 등 다수) 1)

II-2. 沙斤坪과 肆觀坪 표기

의왕시 지명 중 동일한 지명의 漢字 표기가 다른 同音異義(同音異義)(homophony)의 것들이 보일 때는 '모락산'의 경우 麓落山과 麓落山이 그렇고, 義谷과 儀谷, 王倫과 往倫 등의 예 또한 있으나 별자가 이미 별고에서 논의한 바 있어 여기서 다시 부연하지 않겠지만 歷史的 觀點이나 문헌적 고증

6) 제보자 중 현판을 쓴 사람은 두 분이 있는데, 최동진씨는 '주필재(註譯齋)'라고 글서로 써져 있었다고 하며, 박정서씨는 '주필행궁(註譯行宮)'이라는 평서 현판이었다 하여 서로 내용이 맞달리어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쉬울 뿐이다.

7) 옛 사근행궁 건물도 국외한 제보자 및 기타 제보자들을 다음에 밝혀, 본 연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게 되니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로 표현한다.

이영근: 학의동 568,	1916.(음)11.12	박정서: 학의동 679,	1917. 8.15
최동진: 학의동,	1918.(음)6.22	이재룡: 학의동,	1920.(음)7.20
박용익: 학의동,	1921.(음)8.21	이봉철: 학의동 707,	1923. 10.1
김구석: 학의동 64-2,	1925. 5.11	김은중: 학의동 154,	1929. 3.1
유형규: 학의동 76-1,	1925. 4.13.	이필호: 학의동 59,	1932. 2.20
정영진: 포일동 501,	1918.(음)3.9	박재현: 포일동 87-5,	1922. 7.20
김달수: 고천동 279-3,	1919.(음)6.16	박용익: 고천동 156,	1920.(음)2.3
송은안: 고천동 279,	1924.	유병철: 오전동 551,	1916.(음)5.28
이형상: 오전동 351,	1921. 11.1	윤덕창: 왕곡동 177,	1924.(음)6.9
김진형: 왕곡동 23,	1933. 12.30	최분형: 왕곡동 180-4,	1933.
박재현: 이동 514,	1913.(음)5.6	박성현: 이동 218-33,	1918.(음)12.18
이필호: 이동 420,	1930. 4.25		

에 의거하여 볼 때 전자의 漢字 표기가 올바른 것이고 후자의 것은 왜곡되었거나 인위적 조작의 산물을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교(1997), pp. 129-132 참조)

한편 '沙斤'과 '碑觀'에 대해서도 종교(1993, pp. 218-219)에서 언급했듯이 正統의 國후이 간행되면서 기왕의 전통적 지명을 세련된 이름으로 美化시키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부터 '沙斤'이 '碑觀'으로 變改된 漢字 표기가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沙斤'이 '沙'의 관형형 '삭은'의 연결 표기인 '사근'에 대한 漢字 음讀 표기로 인식한 나머지, 아무래도 주정소나 행궁의 이름으로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껴, 國후 노경명을 전반적으로 개사정하는 과정에서 고쳐졌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碑觀'의 '觀' 자는 觀觀(시김간 말이 친정 루모 일을 찾아뵈거나 스님이 속가의 부모를 찾아뵈)에서 보듯 아랫사람이윗사람을 찾아뵈는 것이고 '碑'가 '베를'을 뜻하므로 '碑觀'이 뜻하는 것은 윗어른을 찾아뵈는 자리를 마련한다(베준다)는 의미의 行宮名임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정리의궤』(卷三 移文(移文)조)(1795, 윤2월 초1일)에는 이 '沙斤'에 대한 '碑觀'뿐 아니라, 善沙觀은 萬安觀, 一川觀은 日用觀, 沙斤觀은 彌勒觀(미륵현)으로 새로이 고치니 이 지명을 들에 새겨 길가에 세워 사용토록 하고 각 邑誌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또한, 수원부 경내의 지명도 小黃橋는 皇橋, 梅山橋는 梅橋, 三巨里 店幕은 上柳川店幕, 鬮峯은 鬮峯(용봉), 黃橋는 大皇橋, 龍觀은 龍觀(유점현), 土成橋는 土成觀, 防樂戲(방축수)는 萬年堤로 새로이 고치니 이 지명을 들에 새겨 길가에 세워 사용토록 하는 한편 이 청호를 府誌에 기록함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위 자료 중 의창시와 수원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沙斤觀'은 '彌勒觀'으로 개명하고 있는데 '沙斤'은 한 '지지대 고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고개 정상의 한 지역을 이미 3차 원행 환궁시(정조 16(1792)년 1.25.(양력 2.17)) 正統 대왕이 '淵淵臺(지지대)로 명명한 적이 있다(종교(1993), p. 213 참조). 이 이래로 사근현(沙斤觀)→지지대(淵淵臺), 사근현→미륵현(彌勒觀)으로 개칭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미륵현→지지대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환궁시 사근현 고개에서 멀리 華山(花山) 현릉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넘으면 바라볼 수 없는 사모의 경이 사무처 환궁길을 지체하면서 잠시 쉬었던 자리의 이름으로 불러진 '지지대'가 고개 이름으로 확대 사용하게 되어 새 이름으로 굳건해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지지대' 故事 이전의 王朝實錄 기록은 대체로 沙斤觀 또는 彌勒(堂)觀으로 나타나고, 정조 19년(1795 음력 윤2월 초1일)의 원행로의 대대적 개칭 이후 실록과 지리지 등에는 지지대현(淵淵臺觀) 또는 지지현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다.⑧

8) 『乙卯儀軌』(卷三, 移文)의 윤2월 1일짜 상고할 일에는 원행 노정에 해당하는 여러 지명을 좀더 의미 깊은 말이나 漢字도 새로 고쳐 들에 새겨 길가에 세우는 한편, 각 읍시에 기재하도록 경기감영과 수원부에서 하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소사현(素沙觀)을 萬安觀, 沙斤川을 碑觀(사근명), 一川觀은 日用觀, 沙斤觀은 彌勒觀(미륵현)으로 고쳐도록 하고(경기감영), 수원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小黃橋는 小皇橋, 梅山橋는 梅橋, 삼거리점막은 上柳川店幕, 鬮峯은 용봉(鬮峯), 黃橋는 大皇橋 등으로 고쳐, 들에 새겨 길가에 세우는 것은 물론, 이를 府誌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지나 금석문 등에는 이들에 대한 지명이 일관성을 잃고 혼란된 표기나 지명이 나타나게 된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행궁 이름으로서는 '瞻觀所 行宮'처럼 '瞻觀'이 그 이후의 문헌에 많이 나타나지만, 금속문이나 지시어에서는 '五臺山在神戶城西'(大東地誌, 1864)과 같이 '神戶'이 그대로 써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지명이므로 관(官) 주도하에 갑작스럽게 고친 지명을 일반 사람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 주는 노경(露景)이라 하겠다.

의왕 관내가 아니라면 關所 근처의 鵬峴(까치고개)을 「정리의책」에서 유철현(遊鐵峴)(마을에 흐듯하게 느껴져 보는 고개의 의미, 즉 正廳가 서울에서 약 백 리 먼 길을 쉬/하여 이제 이 고개에 다다르니 마야흐로 승하하신 아버지(關所)를 뵈게 되었으니 감격한 느낌으로 넘는 고개라는 뜻이 함축된 지명인 듯함)으로 개명했으나 몇 년 전 필자가 현지 답사를 통하여 토박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고개(유철현)를 '까치고개'(鵬峴)로 불칭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은 앞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실이다.

II-3. 사근평 행궁에서의 주장

正廳는 1789년(7월~10월17일)에 경부 사도 재차 묘소를 양주 배봉산 영우원에서 수원 화산 현 통원으로 천봉한 후 이듬해(1790)부터 승하(1800.6.28)하기까지 에세 거르기 않고 모두 12차례에 걸쳐 闕후하였다.

이 중 사근평 행궁에 들러 주장한 것은 암성록(日省錄), 承政院日記, 正廳實錄, 闕후定例 및 闕후乙卯整理儀軌 등을 종합해 보면 정조 18(1794)년 5차 원행인 1월13일(양 2월12일) 出宮일과 回宮일인 1월15일(양 2.14.) 두 번 주장했으며, 다음 해인 6차 원행 때도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정조 19(1795)년 윤 2월 10일(양, 3.30.)과 윤 2월 15일(양4.4.) 역시 왕복 두 차례 주장했다. 같은 해 11차 원행 시 정조 23(1799)년 8월 20일(양9.19.) 원소에 가는 길에 한 번 들러 주장하였으므로 전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사근행궁에 주장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재 밝히 문다(『종교』(1993), pp. 209-223, 참고). 할관에는 정조의 효심이 지극한 나머지 한 달이면 20일 이상 원행했다는 제보(박창서, 박용익 외 다수의 제보자)도 있으나 이것은 그만큼 정조의 가혹한 효성이 어느 누구보다 지극함을 뒷받침하는 설화성에 바탕을 두고 구전되는 것일 뿐,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둔다.

II-4. 의왕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일언

정조의 원행과 관련하여 흔히 의왕 시민의 날인 '10월 6일'이 정조가 사근 행궁에 주장했거나 사근

1) 1789년 배봉산 영우원에서 화산 현통원으로 천봉시, 사도재차와 행거가 10월 6일(양력 11월 32일) 사근 내문 직남 때 사근행궁 앞에서 주장했다는 기록은 사근현(까치대고개)을 사근내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류임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 가후에 사료이용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 (『의왕의 전통과 문화』, pp. 58-59, 및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 110.)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각주 참조.

현(지지대)을 지날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짐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흥군에서 분할되어 독립시로 승격된 의왕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날짜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의왕시 시민의 날이 10월 6일이 된 것은 의왕이 과거(1989년 시 승격 전) 시흥군에 속해 있을 때 시흥군 군민의 날을 10월 5일로 정하여 기념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흥 군민의 날을 10월 5일로 정하게 된 것은 물론 정조의 원행과 관련하여 아련한 것이다.

정조 21년(1797)에는 현릉원 원행을 종래대로 음력 1월(사도세자의 탄신일인 1월 21일을 기하여 그날 아니면 전후일을 택하여 원행하기로 하였기에)에 시행한 것이 사실이나, 正祖는 이 해안은 특별히 위의 春幸(8차 원행 1월 30일(양 2.26))으로 끝내지 않고, 9차 원행인 秋幸(8월 17일, 양력 10월 6일)까지 하게 되었다(朝鮮王祖實錄47, 정조21(1797)년 8월 16일 참고).

그 연유는 8월 추석을 맞아 김포에 있는 仁祖生父 元宗의 장릉(章陵)을 전배하는 길에 현릉원 간 배도 아울러 거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장릉 전배를 한 후, 김포 행궁에서 경숙하고 이튿날 8월 16일(양 10.5.) 부평을 경유하여 안산 행궁에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도착하여 이곳에서 경숙하게 되었으니 이날을 기념하여 시흥군민의 날로 정한 것이며, 다음날 8월 17일(양 10.6.)에 안산 행궁을 출발하여 천봉후 현릉원에서 9번째의 각현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당시의 안산 행궁은 시흥군 당시 수안면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시흥시에서는 10월 5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시흥군에서 독립 승격된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흥군 당시처럼 행사의 중복을 고려하여 10월 6일(의왕) 또는 10월 7일(군포시)을 고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의 날 유래에 대한 적잖은 혼란을 거듭할 여지가 있는 듯하다. 굳이 이때에 맞추어 기념일을 택한다면 필자로서는 10월 8일이 어떨까 한다. 왜냐하면 正祖는 10월 6일에 각현례를 마친 후 화성 행궁에서 경숙하고 다음 날인 8월 18일(양 10.7.)에는 화성 행궁 봉수당 왼쪽(북편) 낙남헌(洛南軒)에 나아가 본부 무사에게 활쏘기를 시현해 시상하고 다음날인 8월 19일(양 10.8.)에서야 환궁하는데, 이날도 지지대에서 조금 쉬고 시흥 행궁에서 주정한 후 환궁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한 날은 鼓上의 사근평 행궁에 주정한 날 중 양력 4월 1일 또는 4월 4일(6차 원행 참고)과 11차 원행의 양력 9월 19일이 정조의 원행 일과 직결되는 날이므로 참고될 만한 날이다. 물론 이때 사근평 행궁에는 주정하지 않았으나 환궁길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날(양 10.8.) 사근 행궁 앞 길을 경유해 시흥 행궁에 들러 잠시 주정한 후 환궁한 것으로 믿어진다. 즉자는 10월 6일이 영우원에서 현릉원으로 천봉할 때 사근평 앞길을 지나간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여 의왕 시민의 날로 정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¹⁰⁾ 그러나 이 당시의 모든 문헌의 기록은 음력이므로 이를 양력

10) 정조 13(1789)년 10월 6일은 무오(戊午)일로, 양력으로 정확히 11월 22일이며 일요일이었다. 이날 천봉하기 위한 사도세자의 영거가 화성행궁에서 주정한 후 출발하여 사근현(지지대 고개)을 넘어 잠시 머물 때, 정전(영조 35, 1760)년에 사도세자가 존행(尊幸)하였을 당시의 심회를 역행할수 없어, 이미 이를 달래

으로 환산하면 11월 22일이 되므로 이날도 10월 6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겠다.(왕조실록, 경조13(1789)년 10월6일 참고).

Ⅲ. 화성 축성에 기여한 의왕 지역의 와벽소(瓦壁所) 및 벌목

경조는 경조 13(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는 아버지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으로 고쳤다. 이어 경조 14년 1월부터 대개 현릉원 30수을 거행하는 한편 경조 17년(1793) 수원부(留府)를 유수부(留丁府)로 승격시키고 그 이북도 水原에서 華城으로 바꿔 팔달산 아래 이상항의 인도시 건설을 기획하였다. 다시 2년 뒤 경조 19(1795)년에는 固州도 유수부로 승격시켜 서울 외곽에 내 개의 유수부(개성, 강화, 광주, 화성)를 자리잡게 함으로써 서울의 외곽 체제를 든든하게 마련하게 되었다.

경조의 화성 건설은 군사적으로도 서울 외곽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도 그 의의가 있었으니 당시 서울의 북쪽으로는 개성 일대의 대흥산성(大興山城)과 북한산성, 동으로는 광주의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강화도성과 분수산성(文殊山城)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남쪽의 華城을 축조함으로써 나라의 안명과 방어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¹¹⁾

위와같은 웅대한 꿈을 실은 경조의 華城 건설은 경조 18(1794)년 2월 28일에 착공하여 경조 20(1796)년 9월 10일 완공하는데, 화성 축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華城城役儀軌』에 상세히 밝혀져 놓았는데 총 공사비가 873,520냥과 양곡 약 1500석에 달하는 실로 거대한 역사이었음이 분명하다.

은 삼정에서 정기갑사 서유발으로 하여금 당시 사근행궁에서의 몇주경소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은 사람을 찾아(실록에는 자세한 목적자의 기록이 없으나 官簿錄과 承政院日記에는 실제로 노인 세 사람을 찾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액의 일을 할 기억하고 두 노인은 기억이 잘 없거나 하였으나, 경조가 이들에게 모두 봉을 나누어 주도록한 구제책기록이 있다) 봉을 지급하도록한 사실이 나타나 한다. 국문만 찾아 읽어 오고나 여기저기 사근행이 사근행궁(사근할 주벽소)이 있던 사근대가 아니라 현 지파대 고개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사가 왕조실록에는 없으나, 임실학사 승정원일기(1760년 7월13일짜, 및 1780년 10월 5일-7일)에는 소상히 나타나 있는데, 지문에서 사정을 해독하여 “사근행궁터”의 표시문이나 기타 문헌(의왕의 관할의 분화 p.56~59, 이천시외 역사와 문화 유적 p.110 사근행궁터 일출)에는 현일같이 1780년 10월 5일에 영가과 서근행궁이나 그 앞에서 주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정이 요구된다.

원문1: “大興書碑于東川縣 編年刊載 訪得縣志中時遺停遺地(왕조실록, 경조13, 1789, 1133, 참고)

원문2: “萬壽宮川製 數日 昔古史記遺中時 遺停遺碑 在於此地 予將遊幸矣 仍以萬壽人 扶至東川縣碑之地 約有數三間基址 尚舊草屋其上 其下雖有階砌 上頗謂永安閣也(1) 此地不過數間 伊時書停碑處 尚且其之上 上以京折舊司 幸此地時 故曾與使臣伊人侍 余新監司候有勳 幸沙川川店成三人進前謝曰 三人中一人 受於東辰年 得繼前統義也 二人雖老 而不得詳記云矣 上曰 無怪其未記矣 此三人 兼自京折前來可也 ~”(承政院日記, 경조13년 10월 6일조)

11) 한영우(1998), pp.94~96의 ‘형제의 도시’ 참조.

그런데 華城 倣樣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倣樣에 필요 불가결한 기와와 벽돌이 주로 의왕시 왕곡동과 고천동(당시 광주부 왕곡과 사근)에서 구워지고, 상당량의 재목과 화목을 마련하기 위한 벌목 냇가를 제공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통해 倣樣의 증주적 자세인 기와와 벽돌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구워지고, 또 벌목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III-1. 왕곡면의 와벽소

「화성의궤」에서 보여 준 기와 벽돌 가마의 위치와 그 양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의왕시 관내인 왕곡동(현 왕립)과 사근내빌(고천)에서 구워지고(벽돌 89%, 기와 94.7%) 나머지 일부가 서봉동(현 용인시 서봉동) 및 북성 밖(수원시 장안문밖) 가마에서 구워졌다고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와 굽는 가마는 위 자료 倣四 倣五(갑인, 1794년 2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밝혀 있다.

『왕곡면과 사근내빌(倣觀) 두 곳에 설치하되 기와 굽는 가마는 6개소, 벽돌 굽는 가마는 3개소에 나누어 설치하고, 별도로 장교 2명, 색리 2명을 정하여 감독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 벌는지』(번역본 화성의궤 상 p.319)

『原文: 瓦甃設茶棧置 亦於軒輪倣觀坤南處 瓦四六所 甃則三所分設 而別定二役二吏 檢訪行 何如』

위 文證으로 기와와 벽돌 굽는 가마가 당시 왕곡면 관내의 왕곡동과 사근내빌(별사근내) 두 곳에 있었으며, 이를 두 곳에 가마의 종류별로 기와 가마가 6, 벽돌 가마가 3개 있다고 했으나 왕곡동과 사근내빌 각각에 기와 가마와 벽돌 가마가 각각 몇 개씩 나누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자료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의 하나다.

필자가 시흥군지 발간 당시(1988)에도 이 지역 제보자(김진형 1933.12.30.생, 왕곡동 23)에게서 수원 倣樣 당시의 기와 가마 터 한 곳(왕곡동 59-1-4)이 있다는 것 외에 더 알 수 없었으나, 「화성의궤」 자료를 통해 과거 왕곡 지역에 있었던 기와 가마터는 물론 벽돌 가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속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제보는 다음과 같다.

- ① 왕곡동 141-1 일대는 벽돌 가마가 있었으며 이곳에 있는 논을 '벽순논'이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이 벽돌 굽던 곳임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증거(證左)가 된다. '벽순논'은 '벽소(甃所)논'이 변질된 방언형이기 때문이다. 즉 '벽소 > 벽수'가 되어 '벽수 + 논 > 벽숫논 > 벽순논'이 되

었으므로 '벽소(벽돌 만드는 가마가 있는 곳)의 자리임이 확실하다. 아직도 굽다 남은 벽돌 조각들이 산견(散見)된다. (약 1000여 점)

- ㉒ 왕곡동 59-1-1 일대는 기와 가마가 있던 곳으로 여겨진다. 이곳에 몇 개의 가마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이르거나 하나의 가마터만은 아닌 것 같은 넓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 또한 지명이 '왜굴'로 불려지므로 확실한 듯하다. 즉 '와(瓦)굴 > 왜굴'로 변천한 말로, 시용의 용산 부근 옛 '와서(瓦署)'가 있던 근처의 고개를 '왜고개 또는 외고개'로 지칭하고 있는 동래의 사실을 말해 준다. (1000여 점)
- ㉓ 왕곡동 230-1-3 일대도 큰 벽돌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 것이 발견되므로 이곳도 벽돌 굽던 곳 중의 하나임이 확실해진다. 이곳 일대의 높이는 3890평 정도가 된다.
- ㉔ 왕곡동 산 46-1, 138-1 일대(12)는 세종대학 박물관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일대는 화성 축조 시기와 관련한 '皇前萬工'이라고 새겨진 명문 기와를 수습한 지역으로 기와 가마가 있었던 곳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이 일대 약 500평 지역이 대상 가마터인 듯하다.
- ㉕ 오천동 646 번지(김한구, 1937. 을력 6.5. 생. 소유지) 일대를 '왜벌, 리굴들'이라고 부르는데, 추술했으나 이곳 동쪽의 벽은동 산에서도 발굴하여 재복과 화복을 세정한 기록으로 미루어 이 마도 이곳도 와벽소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일대가 논이었던 까닭에 200여년이 훨씬 지난 현재로서는 그 흔적이 없어져 확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몇 곳은 현지 답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지만 시그내벌은 현재 거의 잔존 밀집 지역이 되어 일일이 매장된 기와나 벽돌 조각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헤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그 대신 간접적으로 재보자의 증언을 재확인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다. 「화성의궤」에도 삼기 자료 외에는 달리 개사 언급한 것이 별로 없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華城儀軌」의 卷首 圖說에서 「瓦廳始瓦署築制 設於廣州駐倫及隴鳳制一室所構約八九百張」 '기와 가마는 와서의 부제와 같은데 광주 황룡 서룡동에 부소 한 군데씩을 두고 약 8, 9백 장씩을 구워 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같은 圖說 2호(이번에 북성 밖에 가마 둘을 묻고'라는 자료에 의해 앞에서 말한 황룡 지역 가마 외에 서룡동과 수원 북문 밖 이던가에 가마가 있었는데 특히 북성 밖에 있었던 가마 둘은 새로운 방식의 가마로 시험 중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화성의궤」 卷首 圖說에는 당시 와벽소의 감독자가 실사임(實仕11: 실제 임무에 임한 날)과 함께 감독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상세히 검토해 보면 광물면 와벽소의 대강 모습을 좀더 확고히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이를 밝히 후일 연구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12)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 p.170~171.

卷首 座目(席次를 적은 목록)

①. 별감동 :

신백륙(申百祿) 실사(實仕) 실지로 그 일에 종사함) 283일
사근와소 수렛길 닦아 냄

②. 감동 :

홍채주 실사 236 왕륜 벌목소 및 와벽소

③. 부패장(府牌將) :

한양 최호빈(崔煥彬) 실사 739일
가선 김광서(金光瑞) 실사 455일 이상 왕륜 와벽소
한양 박종간(朴宗幹) 실사 838일 왕륜의 벌목소 및 와벽소
출신 이경배(李敬培) 실사 791일 왕륜의 벌목 및 와벽소
한양 안사훈(安思勳) 실사 210일 기타 왕륜의 벽돌 굽는 일수렛길 닦는 일

④. 경서리(京書吏) :

전종효(全宗孝) 부석소와 왕륜 와벽소에서 일하다.
김봉득(金鳳得)
나취오(羅就五)
김약눌(金若訥) 이상은 왕륜 와벽소에서 일하다.
황인갑(黃仁甲) 복성, 구포 치목소, 왕륜 와벽소에서 일하다.

위에서 사근대가 왕륜면에 속해 있었지만 위 ①의 '사근와소'가 하나 보이므로, 여기서는 '왕륜'과 '사근'을 구별한 듯하다. 그러나 더 이상 '사근'이 나타나지 않고 왕륜으로 되어 있어 아마도 대부분의 와벽소가 왕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III-2. 가마 부지에 대한 보상

우리는 화성 축조에 관하여 현 의왕시 지역의 왕륜동, 용인시 지역의 서봉동, 수원시의 장안문 밖 동 3곳의 가마터를 엿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의왕시와 관련된 가마터를 논의하는 것이므로 다른 두 곳은 일단 논외로 하고 왕륜의 가마터에 수용된 부지에 관한 당시 보상이 어떠한지에 대

하여 살펴볼 것이다.

가마터 부지에 대한 살림은 당시 부가 보상이 직접적으로 반학에 비례하여 화리(禾糶) 농사를 짓었을 때의 수확을 기호로 환산해 주던 보상비)를 환산해 보상을 주는 것이므로 현재 구원으로 견제 오는 토지의 크기와의 대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華城儀軌(卷人財用조)에 보면 찻길이나 기와 굽는 가마에 수용될 논밭의 화리(禾糶)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는데 의왕지역에 관계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주 왕륜의 기와 굽는 가마에 대한 화리

-갑인년(정조 18년 1794)

보리 345말 (밭 69말지기) (51냥 7전 5분)

벼 15말 (논 1말 5되지기) (8냥)

-을묘(1795)년

보리 680말 (밭 136말지기) (102냥)

벼 145말 (논 14말 5되지기) (29냥)

-병진(1796)년

보리 1,035말 (밭 207말지기) (82냥 8전 8분)

‘어상의 값을 돈으로 치사 268냥 5전 5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좀더 분석해 다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리는 1말지기당 5말 수확량으로 계산하고 벼는 1말지기당 10말 수확량으로 계산하여 보상했다. 아마도 당시의 농사방식으로는 현재보다 단위면적당 소출량이 적었으며 여기에 ② 농사에 드는 경비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계산한 보상인 듯하다. 현재 의왕시 지역 농촌에서는 논 1말지기를 보통 200평으로 잡는데 필자의 조사로는 밭 도 같은 평수로 1말지기를 잡는다. 그러므로 위의

137 갑인(1794)년과 을묘(1795)년에는 화리(禾糶) 대신포가 배 1두: 2전, 보리 1두: 1전 5분, 병진(1796)년에는 배 1두: 1전, 보리 1두: 8분이었으므로

$$\text{보리값은 } 1025(\text{병인}+\text{을묘}) \times 1.5\text{전} = 153\text{냥 } 7\text{전 } 5\text{분}$$

$$1035(\text{병진}) \times 8\text{분} = 82\text{냥 } 8\text{전}$$

$$153\text{냥 } 7\text{전 } 5\text{분} + 82\text{냥 } 8\text{전} = 235\text{냥 } 5\text{전 } 5\text{분}$$

$$\text{벼값은 } 160\text{말}(\text{갑인}+\text{을묘}) \times 2\text{전} = 320(32\text{냥})$$

그런데, 병진년(1796)의 화리값이 갑인(1794)년과 을묘(1795)년보다 벼는 한배, 보리도 약 35%의 하락한 이유는 밝혀 있지 않다. 그리고 화성의례의 자료에는 지역에 따라 화리값을 계산한 것을 보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차이까지 고려한 점이 들어난다. 즉 같은 농작물에 남양 구포 구역이 서로 개별로 들어간 밭과 화리 계산에서는 보리 한말지기당 약6.8말(원문내용: 밭23두3승5 합력의 화리로 보리 159두3승의 대전이 12냥 7전 5분) 수확량으로 한 것이 눈에 띄인다. 그런데 이것은 위의 왕륜면에서의 연말지기당 5말(원문: 밭 207두의 화리로 보리 1,035두의 대전료 82냥 8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보상을 셈이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남양의 밭 토질이 왕륜의 것보다 더 비옥한 데 근거를 둔 듯하다.

내용을 정수로 환산해 다시 살펴보면

·갑인(1794)년 말 13,800평 논 300평 계 14,100평(화리: 54냥 7전 5분)

·을묘(1795)년 말 27,200평 논 2,900평 계 30,100평(화리:131냥)

·병진(1796)년 말 41,400평 계 41,400평(화리: 82냥 8전)

총계 85,600평(화리:268냥 5전 5분)

③ 이상에서 해마다 기와나 벽돌 가마터에 수용된 논지는 증가되었는데 사군평 가마터에 대한 보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기서 황륜은 왕륜동과 사군평을 함께 동일 지역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왕륜면에 왕륜동(왕림)과 사군평(고천동)이 속해 있어 굳이 구별하여 밝히지 않은 듯 하다. 그러므로 사군평의 가마터의 규모가 어떠한지 더 이상 이 자료로는 알 길이 없다.

III-3. 기와와 벽돌 및 벌목 연왕

다음에 당시 왕륜면에서 구워낸 벽돌과 기와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으며 측정에 조달한 양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華城儀軌(華六財用上)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벽전(壁轉)('벽돌' 의 뜻)

대방전(大方轉) 28누리 271장 (필자주 1누리: 1000장) (누리당 50냥)

= 28,271장이하 환산하여 계산 : 1413.55냥

소방전(小方轉) 3,175장 (누리당: 36냥) : 114.3냥

반방전(半方轉) 전체

580,202장 중 (누리당: 36냥) : 20890.51 냥

(-36,883(북성밖)) : 1327.788 *

(-39,329(서봉동)) : 1415.844 *

504,080(왕륜) : 18146.88 *

중벽(宗壁) 25,894 (누리당 50냥) : 1294.7 *

귀벽(耳壁) 5,012 (누리당 50냥) : 250.6 *

개벽(蓋壁) 49,336 (누리당 50냥) : 2466.8 *

홍예벽(虹霓壁) 전체 2,939 중 : 146.95 *

(-699(북성밖)) : 34.95 *

2,240(왕륜) : 112 *

이상 구워낸 값 26,577냥 1전 5분

총환산값 26,577.41냥(이것은 필자가 각각을 환산하여 얻어진 값으로 아래에 있는 '의례'의 총 구워낸 값과 소숫점 이하를 버리면 일치한다.) 서봉동과 북성밖에서 구운 것을 제외하고 왕륜전만을 환산한 값은 23798.57냥으로 전체의 89.5 %다. 벽돌 장수로는 총694,919장 중 왕륜 것이 618,008장이므로 88.9 %에 해당하는 양이다.

왕륜에서 구운 벽돌=694,919(장) - 76,911(장) (북성밖 37,582 + 서봉동 39,329)=618,008(장)

따라서 왕륜+서봉동+북성밖에서 구운 벽돌의 총수는 694,919장으로

이를 구워낸 값이 총 26,577냥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화성축성의 총공사비 873,517냥 7전 9분의 약 3 %에 해당된다.

2) 기와(瓦子)

중암기와(中女夫瓦)	16,921장	(누리당 12냥)
보통암기와(常女夫瓦)	전체352,158장	(누리당 11냥) (27,886(서봉동)) (324,272(왕륜))
중암막새(中女夫助草)	8,930장	(누리당 17냥)
보통암막새(常女夫助草)	6,980장	(누리당 15냥)
옹두(甕頭)	188개	(개당 4전 7분)
허두(簷頭)	20개	(개당 9전)
토수(土首)	66개	(개당 3전 5분)
관병통(筒瓶桶)	2좌	(좌당 2냥)
감상(簷像)	165개	(개당 1전 5분)
연가(煙家)	4좌	(좌당 5전)
이상 구워낸 값이	6,198냥 3전 6분일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기와는 왕륜면과 서봉에서만 구웠으며, 특히 옹두, 허두, 토수, 관병통, 감상, 연가와 같은 특수한 기와는 100% 모두 왕륜에서 구운 것이다. 전체 기와장 수는 각종기와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면 총 385,384장이다.

그리고 서봉 것을 제외하여 얻어진 왕륜에서 생산된 총 기와장 수는 357,498장으로, 전체 생산량의 92 %이다. 화성축성의 중요 차재인 벽돌뿐만 아니라 기와도 거의 모두가 의왕지역에서 생산하여 조

달한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기와: 385,384 - (시봉동 27,886) = 357,498(장)

이상의 내용을 재요약하면, 벽돌은 전체의 약 89%가 왕릉에서 구운 것이고 나머지 북성 밖과 시봉동에서 구운 것은 각각 5.5% 안팎이고, 합하여도 약 11%에 지나지 않는다. 기와도 약 93.9%가 왕릉에서, 나머지 7%가 시봉에서 구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화성 축성의 그 엄청난 기와와 벽돌의 대부분이 다른 곳아 아닌, 바로 의왕의 옛 고창인 왕릉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우리는 화성축성에 대한 공헌과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목재와 화목

우리는 기와와 벽돌뿐 아니라 건설 자재인 목재와 임시 거처를 위한 건축이나 다양한 용도의 화목도 의왕 지역에서 밀루이기는 하나 조달한 흔적이 보인다.

『華城儀軌』 卷百卅二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림에 관계된 감독자의 실사 지역을 또한 추려 볼 수 있다.

1) 별감동 :

전 내금위장 황기경 : 갑인(1794) 2월 - 11월 실사 250일 왕릉 벌목 부석소

2) 감동 :

전 군수 홍재주(洪宰駒) : 갑인 6월 - 을묘 정월 실사 236일 왕릉 벌목소 및 와벽소

3) 부패장 :

한양 박홍복(朴興福) : 실사 32일 왕릉 및 석운동 벌목

전주 김철신(金喆信) : 실사 59일 압역 팔라 벌목

가신 권신항(全信恒) : 실사 111일 왕릉과 본부의 벌목

한양 박종간(朴宗幹) : 실사 838일 왕릉 벌목소, 와벽소

출신 이경배(李敬培) : 실사 791일 왕릉 벌목소 및 와벽소

한편, 『화성의례』 卷五 財用(上)에서 재목조에서는 부,군,현 단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왕주에 해당되는 사항만 추려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한데 다음과 같다.

① 벽련목(劈鍊木) 3,229주 중 1,359주(길이 9척, 방 7촌)가 왕주에서 주당 4전씩 주고 사서 써 온 것이며,

② 장송판(長松板) 2,300널 중 왕주에서 600널(길이 8척 3촌, 넓이 8촌, 두께 1촌), 예보당 3전 3분

③ 큰 서까래감 3,044개 중 왕주에서 373개(길이 20척, 밑동 지름 8촌) 개당 1전8분

(3) 작은 서까래판 3,909개 중 광주에서 1,472개(길이 15리, 밑동지름 3촌1개당 1천5리씩) 주로 사서 배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의 광주는 다름 의궤 품목에서 덧붙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왕권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화성 축성에 있어서 왕권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 영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다름의 품목조에 밝히져 있는 '백운동'(현 회왕시 오진동 백운산 마을), '터골'(왕극동의 왕림마을의 하나), '어업리'(의왕시 아동) 등은 당시 광주의 왕권면이었으므로 위에서 광주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 경기 지구에서의 재목 채취는 왕교산 및 백운산에서 이루어져, 광주의 '왕권'과 용인의 '백운동'(현 시남시 운중동), '서봉동'(용인시 서봉동) 등으로 밝혀 있으나, 주된 별목지인 왕권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화실어록」의 자료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 사항을 밝혀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선 통서(同書)(상) 제사(권1)조에, "4개의 섬문루와 초루에 필요한 큰 재목과 큰 서까래 각각 1천주와 1천200주를 안면도와 삼산곶에서 허가하여 배어 별방천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그 까지는 안홍진의 회급은 데 쓰도록 하며, 그 나머지 재목과 서까래같은 그 소 용에 따라 수상 금양처(나무등을 국가에서 함부로 못 베게하는 관직)의 허락을 받아 배도 즉 한다."
- (2) 품목(권4)조 갑인(1794) 1월29일: "왕권면에서의 별목이 너무 오래 지체한 하달에 여러가지 명목의 가가(假家) 및 모군막(募軍幕) 등을 아직도 치어주지 못하였으니 별감동 조운상(趙運相)과 임교 최윤익(崔潤益)은 당일로 기송하여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는 절교와 힘을 나누어 작업하여, -갑목과 가지들은 뜻으로 묶어서 쌓아 두었다가 회장이에게 간성하게 한 뒤에 즉시 회를 굶도록 계획할 일."
- (3) 위의 품목에 이어 같은 해(1794) 2월 19일: "수래의 바퀴통에 마땅한 괴목을 장교를 잘 하여 사들이고자 한즉, 왕교산 사양지에서 과연 4주의 괴목을 얻었습니다. 대주의 가격 이 1남씩이라고 하므로 ... 그 산주되는 이노복(李魯福), 김의성(金宜成) 등에게 나누어 주고"
- (4) 또 품목 동년 2월 26일: "기와같은 일을 이제 끝마치었는데 여기에 쓰이는 벨나무에 관 하여는 역소에서 벨나무것을 사들이어 ... 베고 운반하여 주기로 결정을 삼았습니다. 왕권 면 백운동에 사양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의 불레가 엄청나므로 별감동 조한진(曹翰振)을 보내어 간성하고 가격을 정중하여 오라 하였으며." 141
- (5) 동년 7월 1일 품목에도 "광주 어업리(於鶴里) 재목112주를 대주 값 2천씩 합한 돈이 22 냥 4 전,"으로 정정한 기록이 있다.
- (6) 을묘(1795)년 4월 30일 품목: "왕권벽소의 재갈 이경배(李敬培)의 수본안에 벽돌을 굶기 위한

(4) 1794(갑인)년 3월 9일짜 품목에 이 왕권면의 서왕(私倉)(개인 소유의) 나무것이 남부 5장이 200오동서 길이 50보씩 횡(橫)의 앞선 남북 길이 30보, 동서 길이 30보의 황한 살이 40량으로 총합한 사실 이 기록되어 있다.

맺것으로 백운산 서쪽 기슭의 맺것의 길이 400보, 넓이 450보의 절가가 57남이라 고 하옵는 바, 작년에 사들인 맺것은 흰개 이피 다 배어 썼기 때문에 달리는 나무를 계속 베어낼 방법이 없어 전에 사들인 장작과 같은 값으로 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의뢰의 좌목,재용, 품목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화성의 여러 누각에 필요한 큰 재목은 주로 안면도나 장삼곶, 그의 관동과 경강 상류(의뢰 참조)에서 베어 수상으로 운반하여 남양 구포 치목소를 거쳐 현장에 조달하였으나, 그의 외의 일반 재목은 화성에서 가까운 광고산과 백운산에서 베어 조달한 것을 알필 수 있다. 그중 백운산을 중심한 왕원면의 백운동, 왕원의 터골, 어업리, 월곡(기타 의뢰 자료 참조) 등에서 크고작은 재목을 조달하게 된 것은 당시의 왕원지역이 무엇보다도 입지적 조건이 좋은 탓이라고도 하겠으나, 또 다른 이유로는 울창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상에서 보았듯이 거의 대부분의 기와와 벽돌이 왕원에서 제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속소 등의 가거나 모군닥, 또는 가마에 필요한 재목이나 화목을 자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벌목을 최가받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일거양득의 재목 채취를 하여 화성축성의 자재 조달의 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IV

우리는 위에서 정조의 현종원 원형과 화성축성에 따른 옛 의왕 지역에 비쳐진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여러 사료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제 다음에 그 대략을 간추려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조의 원행으로, 기존의 전통적 지명인 '사근내'에 대한 漢字 표기가 '沙斤川'의 '沙斤'에서 '沙斤'으로 漢字화시키어 바뀌지고, 아울러 사근현('沙斤峴)을 '미륵현'(彌勒峴)으로 개명하고 또 고개 한 곳을 정조가 원행의 환궁길에 친히 '지지대(漣淵臺)'로 명명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근'에 대한 漢字 표기를 바꾼 것은 당시 조정 관리들의 관료적 사고에서 비롯된 전통을 무시한 일시적, 인위적 개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헌과 금석문에 그렇게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沙斤'으로 통칭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자의 '지지대'는 정조의 효심어린 중심에서 빚어진 땅 이름이었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예 사근현이나 미륵현이 아닌 '지지대 고개(지지대, 지지대현)'로 고정 불변의 이름으로 고착되어, 전설적 이름으로 세인의 입에 구차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사실이다.

둘째로, 비운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릉원에 남다른 효심으로 대해 거르지 않고 원행(開幸)을 한 정조에 대한 백성들의 애한(哀恨)이 두드러지게 비쳐진 의왕 주변언들에게는 자칫 역사를

매죽할 정도에까지 이른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천봉후 열두번 원행길에 사근행궁에 주정한 사실은 천후 다섯 차례뿐인데 다소 과장된 횟수로 유포되고 원봉원 원행도 모두 12차례이었으나 한달에도 20여번 원행했다는 설화적 사실이 의왕 주변 지역에 널리 팽배하고 있는 점은 이제 자세해야 될 것으로 믿어진다. 덧붙여 장조(사도세자) 은행(溫幸)(영조 36년 7월18일 - 8월4일)도 그렇거니와, 장조의 현릉원 천봉시 실제로는 사근행궁에서 주정하지 않았으나 마치 주정한 것처럼 오인하여, 의왕시인의 날(양력 10월 6일)도 이날(천봉시 사근내를 지난날: 음력 10월 6일; 양력 11월22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아울러 인식해야 하겠다.

셋째로, 사근(경)행궁은 현 고천동 사무소 자리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본세인 경당(景堂)과 별세인 별당을 갖추고 있었고 좌부에 고사(槅案)가 있는 형태이었다. 그 밖의 것은 명확하지 않으나, 고로의 증언에 따르면, 돌레에는 기와로 이은 담이 쳐져 있었고 종살문에 길대문(행랑채:아마도 이것이 별당이 아니었던가 함)과 본체의 대문도 있었던 듯하다. 또 길대문안 좌측에 경비각(庫舍의 끝에 있었단 듯 함)이 있고, 아홉드리 큰 향나무가 본세앞 우측(남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기둥은 주춧돌과 함께 두리기둥이고 본세 뒤도 이유가 많은, 약간 언덕바지 경사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결론으로 정초의 화성 축성에 있어서 그 엄청난 기와와 벽돌이 당시 의왕 관내의 하나인 왕릉원에서 제조되고, 이와 함께 적잖은 재목도 왕릉의 몇 곳에서 조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로 인한 적잖은 피해와 노동력 낭비에 따른 부담이 컸을 것이나 이젠 갈 길이 먼 우리 선조들의 인내와 저력은 분명 후손인 우리의 우리 의왕인 가슴속에 연연히 스며 들어 의왕은 물론, 이 나라에 부연가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착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참고 문헌 -

- 이명규(1988a), “<春香傳> 異本의 路程記 考證(一)”, <국어국문학>100, 국어국문학회.
- _____(1988b), “關幸定例에 나타난 京水路程語 研究”, <人文論叢>16, 한양대.
- _____(1993), “正組의 거동길”, <果川郷土史 上>, 과천문화원.
- _____(1997), “그릇된 地名에 관한 考察”, <서울문화> 3, 서울문화사학회.
- _____(1998), “의왕지역의 지명 고찰(1)”, <한양어문> 16, 한양어문학회.
- _____(2000), “의왕지역의 지명 고찰(2)”, <한국언어문화> 18, 한국언어문화학회.
- 한영우(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果川郷土史> 上, 下, 1993.
 <軍浦市史>, 1999.
 <廣州邑誌>
 <南漢志>, 1846.
 <大東地志>, 1864?
 <承政院日記>
 <始興郡誌> 上, 下, 始興郡, 1988.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史學會, 1530.
 <輿地圖書>, 1759.
 <關幸乙卯整理儀軌>, 1795.
 <關幸定例>, 1789-1800.
 <의왕의 역사와 문화 유적>
 <의왕의 전통과 문화>
 <日省錄>
 <朝鮮王朝 實錄>
 <朝鮮地誌略>, 1888.
 <朝鮮地誌資料>, 1919, 국립도서관.
 <戶口總數>, 1789.
 <華城城役儀軌>

윤예원 신부와 애경강습소

리진호 (시인·수필가·서마음관장)

1. 머릿글

저는 《부흥강습소》(1998)를 쓸 때 하우현성당 윤예원 신부와 그가 설립한 애경강습소에 대하여 기술한 일이 있다. 당시 편집위원들이 윤 신부의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윤 신부는 애국자이면서 교육자였다. 그는 애경강습소를 설립하고 2년 후에 육신성당으로 전출되었으나 이 강습소는 성현서당과 덕천국민학교로 맥이 이어져 칠계사동의 초등학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 나갔다. 《부흥강습소》에 기술한 것을 기본으로 다소 보완하여 발표한다. 의향교육사와 천주교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윤예원 신부

1) 윤 신부의 약력

성제 하우현(下厚顯) 성당 윤예원 신부는 1925년경 성당 앞마당 건물에서 미취학 어린이를 모아놓고 강습을 시켰었으나 이것이 성현서당의 모체인 애경강습소다. 먼저 윤 신부는 어떠한 인물인가를 조사 정리한다.

윤예원(尹禮源, 1886~1960.5.7) 본명 도마, 충산(鴻山) 출생. 신부·서동(1914)·1920년 윤예원 신부가 하우현 본당 최초의 한국인 사제(司祭)로 부임 1927년까지 7년간 사제(司敎) 하면서 애국계몽적 성리의 초등교육기관인 성신강습소를 운영하였다. 그는 부임 전 황해도 은

1) 최서호 《한국기독교사건 무속》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109쪽

를(廢棄) 본당에서 전교(傳敎)할 때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나머지 주교의 형제활동 금지 엄명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 독립군 자금을 모금한 바 있는 성직자다.)

하우현성당(1920-1927), 옥천본당(1927), 강원도 대화본당(大和本堂, 현 평창본당, 1931), 제천본당(현 남천동본당, 1942), 주문진본당(1953), 함양본당, 구포본당(龜浦本堂), 은퇴(1968). 그 후 고향인 부여에 가서 장손자 도기(道基—尹 신부 큰형(仁源의 손자) 집에서 요양하다가 1969년 5월 7일 대전성모병원에서 위암으로 선종, 대전교구 성직자 묘소에 안장되었다.)

윤여원은 서양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귀족형의 미남형이었다고 한다. 그는 역사적인 한불 조약(韓佛條約)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던 1886년(고종 23년) 12월 7일 풍산의 최양이 마을(현 부여군 구룡면 숲寺里)에서 과평(坡平) 윤씨 윤정두(尹正斗) 할아버지와 경주 이씨 이 안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5남 2녀였는데 윤 신부의 위로 장남이 인원(仁源 베드로)이고 차남이 의원(義源) 요셉이며, 윤 신부의 아래로 4남이 차원(知源 마르코), 5남으로 희원(喜源) 요한이 있다.

이들 형제 중 희원은 1983년에 선종(善終)⁴⁾하였고 그의 부인 김선옥(金善玉) 마리아는 장남 윤조현(尹肇鉉)과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다.⁵⁾

윤 신부의 조부 윤병식(尹秉植, 일명 堯基) 바오르는 1866년 10월 2일 그의 나이 43세에 경기도 서경리에서 포도밭에게 잡혀 목을 매어 달고 배교(背敎)를 강요하는 고문에 환강히 버티다가 성난 옥리(獄吏)가 후려치는 칼에 한쪽 팔을 잃고도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며 나머지 성한 손으로 심호를 긁는 열심을 보이며 순교한 치명자(致命者)였다.

2) 윤 신부의 부친 윤정두

그때 치명자의 아들, 즉 윤 신부의 부친인 윤정두는 12살의 어린 나이였는데, 부친이 치명한 후, 산골에 숨어서 용기를 구우며 신앙을 지키는 교우촌으로 전전하며 겨우 연명했다 한다.

윤 신부의 부친은 그 후 25세에 교우 허녀 이(李) 안나와 혼인하여 박해를 피해 안면도 등 여기저기로 옮겨 살면서 교우 촌을 전전하다가 박해가 줄어들자 충청도 풍산 땅 최양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2) 서상표 《권주교 장대동교회사》 장대동교회, 75쪽.

3) 옥천본당사편찬위원회의 《옥천본당사(상)》 권주교 영주교구 옥천본당, 1991, 242쪽

4) 권주교 용어도 설명, 개인교에서는 聖父이라고 한다.

5) 앞의 책 《옥천본당사(상)》 231쪽.

최양이 마을은 금사리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읍세 입가가 정착할 즈음은 1890년대 말 서양 이 마을에는 공주본당의 공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당시의 중요 교우 집안으로는 손우기, 김방수도마, 배 미토리오, 이정병 요한, 윤영식 집안의 교우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있었다.

윤 신부의 부친은 1900년에 손우기, 윤영식 등과 함께 상경하여 위털⁶⁾ 주교에게 본당 개설을 건의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1년 5월에 초대 주임신부로 공베르(Julien Gornbert,孔望世) 프랑스 신부를 임명하여 1901년 7월에 금사리본당을 충청도에서 공주본당(1897 설립)에 이어 다섯 번째 설립하였다. 금사리본당은 벽돌 양간 건축을 1901년 4월에 착공하여 1906년 6월에 축성식을 갖게 되는데, 윤 신부의 부친은 금사리본당 건축에 큰 공헌을 했으며, 30여년간 회장을 역임하면서 금사리본당이 이 지역의 신앙의 빛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윤 신부의 부친 윤정두에 관한 흥미 있는 일화가 아직도 다음과 같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그는 금사리본당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침례 때마다 공소에서 오는 신자들에게 축석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회생을 지르자 생계까지 어려운 기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고민 끝에 이 지역을 떠나면 본당회장을 면하리라 생각하고 어느날 밤 기수를 데리고 길을 떠나 어느 마을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순회 판공사 그곳에 온 공베르 본당신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공베르 신부는 웃으면서 “애까지 날 찾아왔는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 왔느냐는 뜻>하며 놀리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되돌아갔다 한다.

3) 용산 예수성심학교 시절과 사제서품

윤 신부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로 주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한다. 최양이 마을 글쟁에서 남달리 글을 읽던 어린 토마는 금사리공소를 관공자 방문한 공주본당의 초대 주임 기남(Guinand, 顧仁安) 신부의 눈에 띄게 되었다. 교리문답과 천주공과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들을 의우는 어린 윤도마를 보고 반한 기남 신부는 그의 부모 윤정두 회장 부부에게 총명한 아이 도마를 사제로 봉헌하라고 설득하게 된다.

위와 신심이 돈독했고 아들 부자로 소문난 이들 부부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총명한 셋째 아들 토마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1899년 9월 22일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13살의 나이로 입학한 윤 도마는 그 후 15년간, 어려운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사제의 험난한 길을 예수 성심계 극기의 덕을 구하며 신학 수업에 정진하였다. 이리하여 8년 후인 1907년부터 소품을 맡기 시작했는데, 이해 5월 29일 사제의 첫 번째 관문인 삭발례를 받게 된다. 그 후 계속하여 1908년 12월 19일에는 수문품

6) 위털 Muter, 1898년 파리외방전교회원, 제8대 조선교구장, 한국명 魏德孝, 프랑스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사임하였다.

을, 1909년 6월 5일에는 장경품을, 1910년 9월 24일에는 구마품을, 1911년 6월 24일에는 시종품을, 1912년 6월 1일에는 차부제품을, 1913년 3월 17일에는 부제품을, 1914년 5월 7일에는 28세에 대양의 사제서품을 받고 구령진선(敎靈進線)에 나서게 된다.

4) 초임지 은올본당에서의 사목활동

서품을 받은 윤 신부는 2개월 후인 1914년 6월, 곧바로 공석 중인 황해도 은올본당(殷栗本堂, 殷栗郡 殷栗面 南川里)의 3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윤 신부의 초임지는 1887년 호 (Rauit, 盧若頂) 신부가 은올본당 공소를 개설한 이래 15년간 강연본당(長連本堂)에 속해 있다가 1902년 비로소 분리 독립했는데 초대 주임신부는 르 장드르 신부였고, 2대 주임신부로는 메리장 베드로(Melizan Domingue, 梅屬霜) 신부가 전교했으나 때 신부가 1905년 재령본당으로 전임되자 이 때부터 윤 신부가 부임하기까지 9년간을 사제가 매정되지 않아 강연본당 관할 공소로 격하되어 있었다.

은올본당에 윤 신부가 부임하게 된 경위는 1907년 2월 13일 뤼팽 주교에게 보내는 강연본당 김문옥 요셉 신부의 라틴어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저를 이곳(강연)에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은올에도 신부 한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은올에 신부가 간다면 교우들 한테서 받는 위로가 이곳보다 클 것입니다. 황해도내 모든 읍내에서 은올만큼 교우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만일 은올에 신부를 보내실 의향이... 그러나 첫 번째 부임하는 신부는 참으로 사도적 정신으로 만남을 무릅쓴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권의는 온옴 신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그 소망은 몇년이 지난 1914년 5월 교구 성직자 연례회경 때 결정되었다.

윤 신부는 은올본당에 부임하자 본당 부활을 위해 신자들의 깊은 피정과 가정을 순방하면서 적극적인 사목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자들 또한 목자 없는 실용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윤 신부의 사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선교에 힘쓰니 교세가 날로 신장되었다.

윤 신부는 은올에 부임한 후 1914년 6월 13일자 서한에서 은올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새 임자에 부임하여 인사드립니다. 읍내에만 180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제가 은올에 부임한 후에 냉담자⁷⁾들이 모두 회개하고 성사를 받았습니다.

읍내 주민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로 멀어졌는데 그 중 몇 사람은 제가 은올에 오기 전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은올 회장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고 이제 한 사람도 카톨릭과 감히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7) 성당에 다녔다가 낙심하여 다니지 않는 자.

윤 신부는 부임 첫 해에 그의 관할 지역에서 61명에게 세례를 주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 중 4명은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으며, 윤 신부의 열성적인 사목활동과 높은 학식에 감명 받아 온을 군수도 그의 가족과 함께 입교하기로 작정하고 영세준비를 하게 되었다.

주일에는 최소한 300명 정도가 미사에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는 천주교에 호기심을 가진 외교인도 끼어 있었다. 외교인들은 미사에 열과 교우들의 직한 일상 생활을 관찰하고 "천주교는 참 종교다. 카톨릭에 입교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천당을 느끼게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이와 같이 윤 신부의 열성적인 사목 활동은 1916년말 교세 통계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1916년 교세는 신자 946명(온을읍 201, 공교 745), 공교 13개소였다. 윤 신부가 전교한 공소는 온을군에 절동, 오리포, 고경동, 장현공소, 송화군에 내야동, 석탄동공소, 신원군에 아현, 상동, 수청, 발산, 동촌, 장봉, 갈현공소가 있었는데 장현(長湍)과 아현(細峴) 공소가 제일 큰 공소였다.

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교우들을 실득하여 비좁은 성당의 신축에 착수하여 1918년 8월 15일에 새 성당을 신축 완공하였다.

윤 신부에 의해 신축된 온을본당의 규모는 길이 80척, 너비 38척으로 총 40칸 85평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비교적 큰 성당이였다.

윤 신부는 새 성당을 신축하느라 상당히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많은 빚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상 교우들을 격려하며 "주님의 사업은 복지 않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였다.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면서 역경을 이겨 나간 그의 초임지 온을본당에서의 사목 활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준다.

5) 윤 신부의 독립운동

35년간 일제 암흑기에 수많은 유명 무명의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조국과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노도와 같이 일어난 삼일운동이다.

온을본당의 윤 신부 역시 젊은 사제로서 끓어오르는 민족애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총리(公使) 임장은 정치운동(독립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윤 신부가 속해 있던 경성교구(京城敎區, 現 서울교구의 옛 이름) 갈상(葛上) 뉘벨 주교의 사목 방침이기도 했다.

끓어오르는 조국애의 열망과 주님의 재단에 바쳐진 교세제도의 순명 사이에서 젊은 사제 윤

신부는 갈등과 면인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1919년 10월 말정 매화동본동(梅花洞本洞, 黃海道 安岳郡 龍門面 枚化洞)에서 열린 구역내 신부회의에 참석했을 때 평양에서 온 임 필립보라는 카톨릭청년으로부터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권고서—'천주교 동표!'라는 제하(題下)의 임경포고문(臨政布告文) 500장을 받고서 자신의 불확실한 행동에 증지부를 찍고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이 협력을 요청한 적십자 운동에 대해서도 인도적 취지를 관동하여 교우들에게 혼화를 통해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이 적십자 회비는 명목상일뿐 실은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군자금 모금이었던 것이다.

(윤 신부가 워털 주교에게 보낸 1919년 11월 15일자 서한문)

또한 윤 신부는 자신의 관할 지역을 돌면서 젊은이들에게 독립 사상을 심어주고 신자들에게 독립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훈계하였다. 이와 같은 윤 신부의 행동은 당시 황해도 강연본당(長連本堂)의 김명계(金命濟) 베드로 신부가 워털 주교에게 1919년 12월 29일자 보낸 보고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윤 신부는 벌써 오래 전부터 조선 독립에 대해 위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내 본당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상의 서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윤 신부의 언행은 관할 지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의 젊은이들에게까지 파급되어 큰 감동을 일으켜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실제적으로 나서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윤 신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해도 지방의 동료 신부들에게도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사실 역시 강연본당 김 신부의 1920년 2월 17일자 라틴어 서한문에 서 확인되고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신 학교 선생들과 학생들에게도 그런 사상을 주입해야 합니다. 만일 적극행동을 못하겠거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은 막지 말아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윤 신부는 평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은율성당을 짓느라고 많은 빚까지 짊어졌지만 40인의 독립운동비를 내놓았으니 너희들도 가급적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윤 신부는 삼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자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관할 구역내 신자들은 물론 한국인 동료 신부들에게까지 참여를 권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가 속한 경성교구의 장상 워털 주교의 사목 방침과 정면으로 삼치(相馳)되는 행동이었다.

이제 막 바해기로부터 소생기에 접어든 조선 천주교회가 정치적 투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당시의 워털루 주교는 즉시 윤 신부의 행동을 크게 무지삼하고 재동을 가했다. 이에 윤 신부는 카톨릭 교계 제도의 순명 정신에 따라 워털루 주교의 훈계를 순순히 받아들여 '정치적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고 1920년 1월 23일자 서한에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료(史料)들을 종합하여 고찰해 볼 때 윤 신부는 같은 사제로서 떠오르는 애국심과 의협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온 많지 않은 천주교 성직자의 한 사람이다.

윤 신부는 그 후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적 행동을 참사 싫어했던 워털루 주교에게 상당히 불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불신임(2)은 자신의 실자가처럼 사제로서, 불같은 열정을 지닌 나라 잃은 불행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속에 품으며 방랑하는 사제로 자주 본동과 교구를 이적하면서 사목 활동을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끓어오르는 조국애에 대한 신념을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어 가끔 표출되곤 했다. 이러한 그의 열정적인 행동은 그의 조부 윤병식의 치명자 정신에 기인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랬든 의협심이 강한 사제, 직격적인 행동, 낙관적인 성품, 불같은 열정, 혁명가적인 기질은 검은 수단을 입은 사제로서의 내적인 승화불 통해 출분을 가라 앉혀야 하는 일이었다.

그의 불같은 조국애는 후일 8.15를 맞이 직전에 강원도 대화(大和)본당의 주임사제로 있을 때에 또 다시 폭발하고 말았다. 일제는 그 말기에 이르자 발악하듯 종잡못 난폭하게 우리 국민을 억누르며 전쟁 물자의 수급을 위해 농토를 식기는 굶은 종자지도 징발해 갔다. 이에 윤 신부는 크게 분노하여 검은 수단 속에서 내연(內燃)되던 끓어오르는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다. 미사 강론 중에 일경(日警)이 임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현황은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비방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주일간 투옥되었으나 성모승천축일인 8월 15일 자애로우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발악하던 일제는 말뚝하고 해맞과 함께 풀려나게 되었다 한다.8)

3. 애경강습소

윤 신부는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한 사유로 워털루 주교의 엄중한 훈계와 경고를 받고 다시는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워털루 주교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조임치 은물본당에서 그가 이룩해 놓은 눈부신 공로에도 불구하고 문책성 인사조치

8) 앞의 책 《육신본당사(상)》 232-237쪽.

에 의해 두 번째 임지인 경기도 하우현본당(下牛峴本堂)에서 사목 활동을 하게 된다.

윤 신부는 은율본당에서 자신이 혼배성사를 주고 함께 생활하던 자신의 막내 동생 희원(喜源) 요한 대의의 도움을 받아 하우현본당 아래에 '애경강습소'를 설립하였다.

강습을 시작한 연대는 언제일까? 이 강습소를 다닌 이귀영(李貴榮, 1920년생, 당시 78세, 고인) 용이 8세 때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를 역산하여 1927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 신부는 1920년 하우현본당에 부임하여 1927년 9월에 옥천본당으로 전임하였다. 그렇다면 1927년 1월부터 시작하였더라도 불과 9개월 동안 애경강습소를 운영하였다는 말인가?

이재승 선생은 1925년에 애경강습소가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실한 고증은 없으나 이 무렵부터 강습하였으리라는 추리를 할 수 있다.

강습소 명칭은 기록이나 증언마다 다르다. 《옥천본당사(상)》에는 애경강습소라고 기술되었고 《천주교장내동교회사》⁹⁾에서는 성신강습소라 하였으며, 이귀영 용은 경애강습소라고 증언하였다. 애경(愛敬)이나 성신(聖神)이나 경애(敬愛)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편의상 이곳에서는 '애경강습소'라고 한다.

윤 신부는 애경강습소 초창기에 청계동 한규설(韓圭說, 진 판서) 덕을 모기기를 앞세워 찾아가 선영 밑에 학교를 세우니 한조를 데달라고 하여 10만원을 받았다.¹⁰⁾ 강습소 운영자금에 쓰기 위하여 모금을 한 것이다. 애경강습소에 한조금을 낸 그는 누구인가?

한규설(韓圭說) ? ~ 1930. 조선 때 대신 서울 출신. 무과에 급제, 영조와 공조판서, 한성부 판윤, 포도대장, 의정부 참정(1903)을 역임, 1905년 참정대신으로 내각을 조직, 을사조약 때 끝까지 반대, 조약체결 후 파면되었다. 중추원 고문, 중대부 특진관(1802, 1903), 법무대신(1902), 육군부장(1907), 경술국치 때 일제는 남작을 주었으나 거절하였다.¹¹⁾

반일사상가이며 애국지사인 이러한 인물이 청계동에 있었다는 것은 윤신부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귀영 용은 애경강습소 교가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소중한 증언으로 여기에 옮긴다.

절애라 이름하여
천지를 용납하며
지덕을 쌓는다.

<후렴>
공고게 임지하여
재덕을 쌓는다.
문화에는 우리학교
성공에는 열성이로다

9) 《천주교 장내동교회사》 장내동 교회.

10) 李貴榮 翁 증언

11) 이희승 외 《韓國人名大辭典》 勸業文化社, 1986.

윤 신부의 제수(弟嫂)인 최원 요한의 차 김선옥(金善玉, 1893년)은 황해도 은율본당에서 윤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율 지방에서 만석군으로 소문난 김 요한의 장녀였다. 윤 신부가 옥명 사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정 부모를 찾아가 윤 신부의 고충을 알렸다. 윤 신부의 성품을 잘 아는 그녀의 부모는 흔쾌히 논 9마지기를 팔아 후원해 주었다 한다.

애경강습소는 4년제 초등과학교로서 교육방침으로 선교교육, 봉사교육, 애국심 함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문맹퇴치 운동도 전개하였고 신개화 사상을 교육하여 풍부한 산골의 용기존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윤 신부가 자신의 교장으로서는 수신(修身, 주소 종교교육)과 음악을 가르쳤으며, 윤 신부의 막내 동생 최원 요한은 수원농림학교(1914)를 졸업하고 교감으로서 새조와 농업을 가르쳤고, 그밖에 남중오, 남기, 박순옥, 박순구, 채규일, 등의 교사가 극어, 산술, 도화, 서예 등 8개 과목을 나누어 가르쳤으며, 총일점으로 기사와 주예를 가르치는 김선금(金善金, 1888 金善玉의 弟, 당시 진명여중을 졸업한 신여성) 여교사가 있었다. 채규일은 후에 심현서당에도 계속 교편을 잡는다.

사목 활동을 하면서 애경강습소를 운영하는 일은 상당히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같은 그의 열정은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면서, 오히려 역경을 덜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윤 신부가 재임할 당시 뒤셀 주교의 보좌 주교인 드브레(Deren) 주교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아날'(Annales de Societe Missions Etrangeres)잡지에 기고한 192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서울은 제외)는 14,293명의 교우가 있는데, 이들은 9개 본당과 168개 공소로 분할되어 2명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와 7명의 한국인 신부가 맡고 있었다고 한다.

하우현본당은 17개 공소에 총 교우수는 1,086명, 애경학교 학생 수는 47명이었다 한다. 윤 신부는 30년이나 오래된 한옥 성당이 무너질 위침이 있었고, 또 신자수가 4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매일 걱정이 태산 같았다. 신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달배 천대에 관한 총독부의 조치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곳에서 연초 제배가 금지되었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 수단을 찾아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

윤 신부는 1927년 9월 하우현본당에서 7년여의 사목 활동을 마감하고 그의 새 번째 임지인 옥천본당으로 전임하게 된다.¹²⁾

윤 신부는 수신(주로 종교교육)과 음악을 가르쳤다고 전술하였다. 은율본당에서 뒤셀 주교의 지침을 위반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을 것이다.

12) 광복 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생명과학대학에 되었다. 자자가 졸업자 영단을 찾아보았으나 그리 이유는 없다.

13) 앞의 책 《옥천본당사(상)》 237, 238쪽.

정태진(丁泰鎭) 옹은 윤 신부는 야학에서 일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독립정신이 투철한 그가 왜 일어를 가르쳤을까?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하고 일본을 알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을까?

윤 신부는 사목하는 동안 애경강습소를 개설하여 육영사업에 힘썼으나 본당 내 모종의 불미한 사건으로 인하여 옥천 본당으로 전임되었다.¹⁴⁾ 우리는 <불미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4. 맺음글

문헌과 증언을 통하여 윤 신부와 애경강습소를 조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윤 신부의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열을 느낄 수 있다. 이 정신은 애경강습소를 이어 받은 성형서당 정준모(鄭俊謨) 당장으로 이어간다. 이 무렵 청계에는 애국투사이며 계명강습소 선생을 지낸 성주보입석진이 독립사상을 고취하였으니 이 또한 윤 신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하간 윤 신부는 의왕의 자랑스러운 신부요 애경강습소는 의왕 최초의 신교육기관이다.

14) 趙聖烈의 알미 글

의왕의 문화예술 발전방향과 과제

조 창 연 (강남대학교 · 의왕시민포럼 집행위원장)

의왕문화원이 창립 원지 올해로 만 3년이 지나면서, 의왕문화예술의 “소리들” 역할을 할 “의왕문화지”가 창간된다고 한다. 이것은 참 기쁜 일이다. 그동안 의왕문화원은 문화예술의 보급지인 의왕지역에서 지역고유의 문화개발과 보존,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그리고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위해서 공헌하였다.

그렇다면 문화(Culture)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총체적 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문화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래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학습되어진다. 또한 문화는 주민생활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지는 것이며, 문화는 항상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문화도 마찬가지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그 지역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의왕지역은 시흥군 의왕읍 시절 농업과 미비한 살공업 중심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고, 1989년 의왕시 승격이후 농경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도시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런 구분이 다른 지역보다도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왕은 “무지개 색깔”을 띤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은 그 지역사회가 얼마만큼의 기억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지방적인 것이, 가장 우리 것이며,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흐름에 따라서 방언(사투리)까지도 그 나라의 문화적 풍요를 위한 자산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정도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하여 지역문화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의왕문화원도 의왕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지역의 문화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의왕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의왕시민들은 관대유통시설,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리고 문화여가 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⁵⁾ 이것은 의왕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의왕시 사회환경문화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고(思考)의 태 전환과 함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의왕의 문화예술은 군포, 과천, 안양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안양의 경우는 옛 안양종합촬영소의 맥을 잇기 위해서 '영화학교'를 제정하여 안양을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의왕의 문화예술발전의 큰 관제는 이렇다할 문화재(文化財)와 문화유적(文化遺蹟)이 없으며, 또한 지역을 하나로 묶을 만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프로그램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왕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고민되어야 한다.

첫째, 의왕문화의 정체성(正體性)의 확립이다.

정체성(identity)은 대개 동일성, 주체성, 자기 확인, 귀속의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체성은 주로 개인이 지니는 자기의 존재증명, 또는 끌린 자아, 자기의 단일성이나 연속성, 불변성, 주체성 등의 감각을 의미한다. 또한 정체성은 일정한 인격이나 그 외의 대상과의 사이에서, 또는 일정한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정체성은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라든지 긍정되는 역할을 매개로 하여 획득되는 연대감과 안정감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기존중 또는 긍정적 자기상(自己像)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문화의 정체성은 특정한 문화권의 구성원 대부분의 공유하고 있는 생활방식의 총체로서, 그 특정한 문화

15) 의왕시, 의왕비전 21(중간보고서), 2002.12, 54쪽

권의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느끼며, 그 문화가 지니는 존재증명인 동시에 단일성이나 연속성, 용변성, 주체성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왕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의왕시에 살면서, 의왕에 대한 귀속 의식과 지역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의왕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서로 연대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역문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의왕의 문화예술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문화정체성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향토문화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이다.

“文化財”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위적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景觀的 價値가 큰 유무형문화재¹⁶⁾와 기념물¹⁷⁾, 그리고 민속자료¹⁸⁾ 등을 말한다.

의왕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적으로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는 의왕지역의 향토문화적 특성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의왕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4점, 경기도지정 기념물 1점, 유형문화재 2점, 문화재 자료 2점, 향토유적 2개소, 전통서판 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문화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관리는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에 대한 역사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의왕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제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면, 이에 대한 노력 없이는 의왕시의 문화예술을 특성화 시킬 수 없다.

따라서 특성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정신적 지주인 지역문화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적극

16) 有形文化財는 建築物再修護跡古文書圖書雜項等 物品을 有形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학·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부하는 考古資料를 말한다. 그리고 無形文化財는 연구용·업무용·예기용 등 무형의 문화적 遺産으로서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17) 紀念物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寺社古蹟 史蹟城址 古址 歷史遺物 包含層等의 史蹟地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사물로써 역사·학술적 가치가 큰 것, 둘째, 景勝地로서 예술·학술적 가치가 큰 곳, 셋째, 古物, 古蹟(古生地), 광물, 동물, 지질, 그리고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정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景觀的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18) 民俗資料는 衣食住, 生産, 信儀, 歲時行事 등에 관한 風俗 및 習俗과 이에 사용되는 衣服, 器具, 樂器等으로서 국민생활의 推移를 이해함에 有價한 것을 의미한다.

무각시켜 의왕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에 의해서 문화 예술적 모형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의왕시의 사회구조시대 계층은 과거 농업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다. 농업사회는 가부장적 권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체도로써 의사결정구조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기틀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각 계층들의 다양한 삶이 축적되어 발전하므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의왕시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원, 예술,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예술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특성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 부각 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특성 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

현재 우리 의왕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특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왕시 문화예술발전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의왕시의 사회경제구조는 칠계동, 학현동, 초평동, 등은 화훼농업중심 지역이고, 부곡동 지역은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내손동, 오천동, 고원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이다.

그렇다면 칠계와 학현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훼산업, 즉 꽃을 소재로 하는 가칭 "화훼조형예술축제"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곡동 지역은 기차 제조업체인 (주) 로템, 철도대학, 철도박물관, 철도연수원, 의왕생태학습공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황송지수지가 있고, 2007년도에는 "세계철도박람회"가 열린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부곡역에서 철도박물관을 연결하는 모노레일(경전철)이 건설

된 예정이다. 그렇다면 부곡동 지역은 철도와 환경을 테마로 하는 가칭 “철도환경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왕시의 북쪽에는 “화훼조형예술축제”를 남쪽에는 “철도환경문화축제”를 양쪽으로 구축한다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예술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는 의왕시 행정조직의 문화화와 문화담당 공무원 및 문화관련 단체들의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면 의왕시 문화예술발전은 질적, 양적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과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시민과 문화관련 단체,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의왕시 등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왕의 문화예술발전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왕의 지역적 특성이 내포된 문화예술 모형은 의왕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더 나아가서 파격적인 지방정부로서 의왕시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의왕의 전통문화축제 되돌아보기

박 철 하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의왕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축제 자체가 문제로 되진 않는다.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선거와 함께 거듭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감정' 이 덧 붙여져 주민화합은 항상 불안한 상태라 하겠다.

1. 축제는 많은데--

요즈음 온 나라 곳곳에서는 지역축제(또는 향토축제)가 앞다투어 열리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축제 대부분이 관(자치단체) 주도 아래 신설·운영되어 있으며, 지역특색과 원형성을 무시한 시열식 종합축제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 전통역사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거나 산업 마케팅 전략에 입각한 축제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획득하는 경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축제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그 한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주의가 전통문화축제의 왜곡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는 그 지역의 동질성과 함께 특수성을 공감하고 재생산하며, 교육하고 계승함으로써 상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전통문화축제는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소재를 발굴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공감대 확산, 전통과 현대문화의 어울림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주관단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일상에서 '일탈'을 통해 새로운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실재는 어떠한가? 전통문화축제가 업적주의에 대물되어 역사성이 무시되거나 축제 없이 즐기는 1회용 놀이관에 머물고 있진 않은가? 생육형태의 축제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화합과

일체감보다는 대결과 승부의 자리로 변질되어 있진 않은가? 지역 주민들이 축제 자체에서 소외되어 '관객화' 되어가진 않는가? 본 발표에서는(간혹설이 곁어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 전통문화축제는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왕지역 전통문화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왕지역 전통문화축제의 현황과 구성 및 주제

1) 시민의 날/백운예술제

의왕지역의 전통문화축제로는 아래의 <표 1> 와 같이 시민의 날, 백운예술제, 의왕단오제, 왕곡동제, 산신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에서는 시민의 날 주요 행사로써 동별 대형 체육대회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예술제를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백운예술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사프로그램의 기획과정은 의왕시에서 주관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단체의 대강이 범위로 이미 시에서 정해진다(대체로 의왕문화원, 의왕JC, 의왕시 국악협회, 극단 의왕 37, 의왕미술인협회, 대한프로사진작가 의왕시지부, 의왕시 새마을부녀회, 의왕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이러한 행사 내용에 대한 예산은 문화원으로 이관되며 이후 진행과정 및 재정부분을 문화원에서 관리한다. 행정적 지원은 물론 시에서 담당하게 된다. 백운예술제의 기획 및 제작은 일체 시에서 장악하고 있으며 문화원은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곧 전통문화축제의 주제미저도 왜곡하게 된다. 재정을 전적으로 시에 의존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이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주체는 시가 되고 시민들은 '관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란 의왕시의 기획 의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시민은 관객의 수준에 머물고, 문화예술계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백운예술제를 전통문화와 현대성이 잘 결합된 축제로 발전시키시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결합에 의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의왕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전문부서 및 담당자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2,3년마다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 이동 체계로는 축제의 지속성과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표 1〉 의왕지역 전통문화축제의 사례

	의왕단오제	왕곡동제
주최/주관단체	주최--의왕문화원	시민--정원고/주민, 후원-의왕시
시기	매년 음력 5월 5일	시민의 날 개막 행사/민화대회 참가
프로그램	갈놀이/국악/경기민요/효도관지(노인 점심대접)/악극/영화/단오부채전/씨름/가훈씨주기/효도사진 찍어드리기/전통죽구/태권도	산신제, 땅다지기, 사물놀이, 강승낙송 및 강승새우기, 씨름, 빗단 들고 달리기 등이 한데 어루러진다/대회참가 때에는 대체로 20-30분의 행사로 마무리됨에 따라 위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시민의 날	백운예술제
주최/주관단체	주최--의왕시 주관--각 체육단체	주최--의왕시 주관--의왕문화원
기간	매월 10월 6일(전야제 포함)	시민의 날로부터 1주일간
프로그램	동 대항체육대회/노래자랑/독후감대회/합창제/연극제/시민대상, 도민상, 시의회의장상	노래자랑/꽃,그림,사진 등 전시회/국악/무용/연극/마달극/합창제/문학의 밤/먹거리/특산물 홍보 및 판매
기타		진행요원 봉사자 확보 미흡(문화원)

	오전동 산신제
주최/주관단체	주관--주민
시기	매년 음력 10월 초
프로그램	당주 선정(제관, 축관)/참여주민 선정(쇠고기 값, 죽 제비 분담)/산신제/음뽕국 및 뒤불이
기타	

2) 의왕단오제

의왕단오제의 경우 의왕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역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시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문화축제로서 단오제를 재현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축제로 구성하는 데는 재정적 문제가 가장 어려운 요소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각종 기업이나 지역 유지의 재정 지원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제금, 제충의 시민단체 및 학교기관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의왕단오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원에서는 단오제의 재충이란 결과 요를 통한 가정의 도덕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화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2년도 전통축구 경기는 신선한 재미를 제공해 주었다. 문화원의 바람대로 '각계 각층의 시민과 학생들의 즐거운 참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재현에 머물지 말고 현대적 해석을 기쁘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왕곡동제

왕곡동제는 실제 300여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전 왕곡리 은행나무에서 시작해서 백운산으로 올라가 소를 잡아 재물로 바치고 산재를 올린 뒤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왕곡동제는 처음에는 1991년 고천산신제로 발굴되어 그 해 제7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2등)을 수상하여 의왕시의 전통민속예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뒤 민속예술 개교증을 통해 1994년 왕곡동제로 변경되어 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개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왕곡동제는 150명~2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점차 일반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시의 요청에 따라 청원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재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왕지역 전통문화축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은 모습을 띠고 있는 민속예술로 판단된다.

하지만 점차 학생들의 학사일정 및 수험준비 문제, 학부형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2001년을 끝으로 청원고등학교 학생에 의한 재현은 중지되었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의왕JC에서 왕곡동제 재현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왕시에서는 왕곡동제의 재현을 위한 대책을 깊게 지원해왔다.

4) 오전동 산신제

의왕 지역이 자연마을에서는 지금도 마을 공동체의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산제(산제사), 도당제, 담제사, 담제, 우물고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표 2〉 참조). 이 가운데 오전동 산제를 살펴보겠다.

〈표 2〉 의왕의 마을 공동체 신앙

마을명	명칭	장소	일시	제관	특기사항
청계동	없음				
포일동	새터서낭제	서낭나무		무당 참여하여 축원	1997~1999년까지만 지냄
	양지관우물고사	마을 내 큰 우물	음 칠월 초하룻날		소 잡아 고기 나눔
내손동	능안산제사	갈미당집	음 시월 초하룻날	제관, 소임	
희의동	학현 산제	마을 뒤 초를 자연제당	음 시월 중순 지나 택일	당주, 축관, 제물준비자	소 잡아 고기 나눔
	의일 산제	5개 마을 합하여 적제, 당집	음 시월 초 택일	제관, 축관, 소임	소 잡아 나눔
오전동	오대기 산제	티구가리형 산제당	음 시월 초 택일	제관, 소임	소 잡아 나눔
	전주동 산신제	백봉산 산신바위(현 당집)	음 시월 초 택일	당주내외, 축관, 제관	소잡아 나누고 유부국 먹기
	전주동 단오제	마을입구 느티나무	음 오월 단오날	단신 주관	
이동	어혈 당제사	당집	음 시월 초 이튿날	당주, 제관, 축관	소잡아 나눈 뒤 관치
초평동	없음				
왕곡동	산제강승제 당집	백운산	음 시월 백일	유사, 사령, 소임, 고기나누는 집	소잡아 나누고 남너 장승 세우기
고천동	안골산제도당 제강승제	제당	음 시월 백일	당주, 소임, 문서 내외	물 건너 마을에서는 당주 안네기, 장승세우기
월암동	월암1동 정제	우물신	음 칠월 초하룻날	제관	소잡아 나눔
	월암2동 산제	티구가리형 당집(현 당집)	음역 시월 초삼째택일	당주, 축관, 헌관 3명	물문 보내기, 남너장승 세우기

먼저 당주(내외)를 선정하고 당주의 운수가 좋은 날 가운데 음력 10월의 어느 날을 택일을 하며, 축관과 제관이 구성된다. 당주는 제사 1주일 전부터 심신을 깨끗이 하고 여러 제물을 준비한다. 산세 당일 새벽 5시를 전후해 당주 내외가 당집으로 와서 식례를 담그고 마을회관 불부레나무 아래에서 제물로 바칠 소를 잡는다. 산제는 오후 4시부터 용직이기 시작하며 모락산 지락 병풍산 중턱에 세워진 당집에서 당주 내외와 축관, 제관만이 참석할 가운데 제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평온을 위해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제관이 일일이 거명하면 소지하는 사람이 '부보 소지를 올립니다' 하며 소지 한 장 한 장을 활활 태워 하늘로 올린다. 산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400여년 된 느티나무 곁의 마을회관에 모여 제비를 낸 사람들에게 쇠고기를 나눠주고 이웃들이 한 데 모여 음복죽을 끓여 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운명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천물에서 삶 자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매우 신성한 것임을 체득한다. 또한 제를 마친 마을 한 가운데서 한바탕의 잔치를 벌이면서 일시적이거나 일상의 '일탈'을 즐기며 주민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갖는다.

3. 의왕시 전통문화축제의 몇 가지 문제점

1) 의왕시민의 날/백운예술제

의왕시민의 날은 백운예술제와 함께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1주일간 진행된다. 의왕시민의 날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 살펴보자.

의왕시민의 날과 관련한 두 가지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왕시민의 날이 10월 6일로 된 것은 10여 차례 이상 이뤄진 정조의 화성 능행기 과정 및 수원외 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정조는 1789년 10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을 지나 화성의 현릉원(현 용전능)으로 옮겼다. 이때 정조와 함께 한 사도세자의 영여(靈輿)가 10월 6일 과천을 출발하여 사근현(沙斤縣 지금의 지지대고개)을 지나 수원에 도착한다. 이후 정조는 동행차 과정에서 사근현주장소에 자주 머물게 되고 사근현주장소는 행궁(行宮)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날 10월 6일은 음력 날짜이다. 의왕시에서는 1989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하면서, 방략으로 환산하면 시민들이 함께 하지에는 추운 날씨인 11월 또는 12월이 되므로, 음력 날짜를 그대로 양력 날짜로 대치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왜곡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의 날 행사나 백운예술제 가운데 시민의 날 10월 6일의 주요 상징인

경조와 관련한 어떠한 행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시민의 삶이 역사성과 괴리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의왕의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의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 자체가 없거나 허구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화곡이다.

의왕 지역과 관련하여 경조의 화성 농행사 과정은 단순히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농을 찾고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고자 의왕 지역(사근천)을 지나다 잠시 머물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도세자의 농을 화성으로 옮기고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조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함께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근천 지역(현 고천 오천동 지역)은 역사상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막이 형성되며 교통 요지로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화성 축조 과정에서 기와를 굽게 됨으로써 경제적 변화도 가져왔다. 이곳 주민들의 삶이 임금에게 전달되고 임금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관리에게 시행토록 하였다.

그렇다면 시민의 삶에 경조를 상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경조의 행차를 재현하는 것이다. 경조와 경조의 어머니 배경궁 홍씨를 선발하고 일정한 행차의 구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간단한 기본 구성 이외에는 다양한 노동자농민시민단체, 학생 등이 깃발을 들고 뒤를 잇거나 일반 시민 가정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가삼행렬이 뒤따르는 것도 좋겠다. 그 길은 옛길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 도로(안양교도소 뒷길-->여성회관-->북계천-->사근행궁터로 이어지는 지금의 고천동사무소)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사근행궁터(지금의 고천동사무소 자리로 추정)에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임금에게 삶의 고충을 토로하고 의왕에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 주위 곳곳에서는 다양한 먹거리판과 주막을 재현하고 길거리 서커스, 차력, 잇잠수도 배치해도 좋겠다. 그야말로 온 시민의 함께 즐기는 한마당의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의왕 시민이 모두 공유할 새로운 기념일이자 축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의왕지역도 일제 강점기에 민족해방을 위해 온 주민이 힘을 합하여 저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곧 1919년 3·1만세운동이다. 의왕지역에서는 1919년 3월 31일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든 주민들이 당시 의왕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오가며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지금의 오천, 고천지역을 비롯해 경계지역과 오봉산 너미에서도 이곳 면사무소로 넘어와 한 곳에 모였다. 당일 모인 사람이 800여 명이나 되었다. 아마도 한 가구당 한 명은 참석할 듯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제 경찰은 물론 수원의 보병부대의 군인들이 와서 만세를 외치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의왕의 3·1만세운동은 3월 31일에 기념하는 것은 어떨까? 그때의 그 모습을 하고 각 마을에서 모여드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의 행사가 잘 기획된다면 새로운 행태의 축제가 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근대 민족의 해방운동을 토대로 현실의 모순과 접목한다면 또 다른 '해방'의 장으로, 통합의 시간으로 의왕시민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왕단오제/왕곡동제

의왕단오제와 왕곡동제는 기존의 축제 가운데 전통문화축제에 가장 가까운 태상이 될 것이다. 의왕단오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단오제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기획력과 예산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성을 재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그네뛰기를 행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왕포물에 머리감는 체험을 제공하며, 권연술감으로 천에 돌달이는 행사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오제와 왕곡동제 두 축제를 개별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왕곡동제의 구성 요소인 씨름, 장승싸움놀이, 뗏목 타고 달리기, 사물놀이 등이 함께 어우러지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신나는 '난장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왕곡동제의 경우, 나레이터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왕곡동제 참여자들의 응성이 일반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왕곡동제의 재현에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곡동제는 당산나무(500여 년 된 은행나무) 아래서 나무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유래하였듯이 은행나무의 소재가 필요하다. 또한 그 재현과정에서 일반적인 동제의 형태를 취하다 보니 왕곡동제를 구성하는 게 요소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고증이 미흡한 듯하다. 한 가지 예로 솥대의 경우를 보자. 왕곡리에서는 장승 옆에 학지밭을 세웠다고 한다. 학지밭은 길이 2내지 2.5미터 정도 되는 가느다란 소나무를 상부의 가지 3,4개만 남기고 모두 잘라 내고 한가지에만 조그만 나무판을 붙여 만든다. 그리고 이 조그만 나무판을 새라고 여가는 데 특히 까마귀, 오리, 기러기라고든 한다. 새를 얹혀지 않은 나머지 가지에는 정월에 오색 천에 오곡을 싸서 걸어 둔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다른 모양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왕곡동제는 각종 민속대회에 참가하거나 시민의 날 개마 기념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20-30분의 짧은 시간에 일반에게 '재현, 즉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동제의 한 구성요소로 장승싸움놀이, 마을 대항 줄다리기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산신제 중에는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함께 참가하여 미래의 행복을 기원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나아가 왕곡동 지역에서 왕곡동제를 순서대로 실제 거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3) 오전동 산신제

마을 단위의 산신제는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 행할 수 있는 '작은 축제'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볼 만하다. 오전동 산신제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으며, 신성함과 아울러 오전동을 지켜나가는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임위해 나갈 수 있는 제기성을 마련해 준다. 산신제가 갖는 신성함을 유지하고, 그를 통한 개별 가정의 안녕을 기원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아우러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산신제 관련 요소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당굿을 빌며 마을 주민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거나 마을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 창기와 랑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이러한 경우 자체 예산 확보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을 단위의 축제는 동단위의 대표적 축제인 체육대회 일련도의 무미건조한 행사와 달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점도 있다. 즉 일부 토박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함으로써 마을 모든 주민들의 화합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전동 산신제의 경우 이곳에서 20여년 전후로 살아오면서 지역의 굿은 일에 애써온 상당수의 주민들이 '애향회'를 중심으로 함께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계성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도 있다. 산신제와 같은 유형의 작은 마을 축제에서는 토박이문을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이주해온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저 먼 고향에 대한 향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 정체성을 찾아서--

지역축제의 자원과 상징으로는 자연환경, 조형물, 역사적 사건과 인물, 민속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상품화 가능성도 있음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지역 상징을 통한 지역축제는 지역 정체성의 강화와 통합이란 문화 정치의 내재적 지능과 지역 이미지 홍보 전략이란 외형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 의왕의 일부 이 탈 요소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전통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우선은 전자의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축제는 그 범위나 성격상 행정구역이란 제도로써 구획선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왕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것 자체가 문제로 되진 않는다.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선거와 함께 거듭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감정'이 덧붙여져 주민화합은 항상 불안한 상태라 하겠다. 특히 의왕의 경우 교육과 문화사회의 복지의 상대적 결여도 받아들이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가져오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올바른 역사에 토대를 두지 않은 지역축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축제는 하나의 사회적 행사로서 역사의 기억을 현실화하고 역사를 복원하며,

살아 있는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갖는 장인 것이다. 또한 축제는 외부에 대한 과시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서로가 자기 고향의 축제가 어느정도 잘되기를 걱정하기도 함으로써 서로 동질성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서로가 지역적·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집단으로 인식되며, 같은 운명을 지니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형성된다. 이로써 축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경제성을 확인하도록 해주며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달성토록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5. 맺음말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축제를 포함해 지역축제가 주어진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 1) 지역이 없는 축제, 주체가 없는 축제, 주민 참여가 없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 2) 제한된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것에서 탈피하자
- 3) 노래자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자
- 4) 종합축제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 지역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 5) 시기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
- 6)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국제적 전통문화축제와 교류하자
- 7) 지역문화예술 창조란 마인드를 갖자
- 8) 이상의 준비를 강화한 뒤에 마케팅 전략을 적극 고민하자

의왕의 향토지

리진호 (우물지적박물관장)

1. 儀旺의 傳統과 文化

편저자 이승언(李承彦 본명 漢基, 고인) 감수 이명규(李明圭 국문학자, 전 한양대 교수) 1991년 의왕시 발행, 46매판 226쪽.

제1편 총설에서 연혁과 현황, 제2편 전통과 문화에서 문화재·조상화·엠티·토지·문학비 등을 제3편 인물에서 조인규에서 윤국로에 이르기까지 80명을 제4편 지명 제5편 식물 제6편 전설 제7편 명승 관광을 다루었다.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시지로서 모양을 갖춘 의왕 최초의 향토지라고 할 수 있다.



2. 星峴書堂史



리진호(지적박물관장) 지음, 1998년, 감리교출판사 발행, 크라운판 354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초등교육, 제3장 수원의 초등교육, 제4장 성현서당의 학군 제5장 사동의 서당, 제6장 예경강습소→성현서당 제7장 성현서당 졸업생이 진출한 학교(고천·과천·덕장) 제8장 기념사업, 제9장 결론 부록 서당규칙 4건이다.

서당史라고 하지만 4동의 역사·지리·지적 등을 다룬 향토지다. 성현서당의 엠티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개체 서당史로는 한국에서 최초요 유일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독일·영국 등 대학도서관에서 구입해 갔으니 외국에서는 관심이 있는 듯하다.

3. 儀旺市地域 官吏錄 1895~2001

해제·편집 리진호. 2001년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발행, 132쪽.

역사의 주인공은 두 말 할 것 없이 사람이다. 특히 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관리의 위력은 나는 세도 멀어트릴 만한 것이다. 직원록을 비롯한 명부는 그 당시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자료다. 누가 뭐라 하여도 명단에 없으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고 따라서 그의 공과도 논할 수 없다(체제 중에서) 18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료에서 발췌하여 해제를 곁들여 정리한 책이다. 말미에 의왕시(수원)에서 근무하였던 관리와 2001년 현재 의왕시 근무 5급 이상 공무원의 이력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 기술하였다. 의왕시지 편찬의 기본자료가 된다.



4. 儀旺地圖帖



해제 편집 리진호 8월 12쪽 동여비고(1682)·군현도(조선후기)·동여도(1857)·군사밀도(1895) 중 의왕지역부분과 현 의왕행정구역도를 더하여 편집한 것이다.

특히 김정호의 동여도는 조선후기 아름다운 그림지도의 백미로 돋보인다. 이 지도첩을 통하여 우리는 조상들의 지도에 대한 승씨와 예지를 알 수 있고 향토사랑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으며 지도의 발달사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의왕문화원 임원 명단

연번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핸 드 폰	주 소	비고
1	원 장	박용하				
2	부원장	김경호				
3	*	이동수				
4	이 사	정진우				
5	*	이규환				
6	*	마영득				
7	*	심의식				
8	*	윤형배				
9	*	고경덕				
10	*	이덕형				
11	*	이종훈				
12	*	리진호				
13	*	이영규				
14	*	유지웅				
15	*	이병두				
16	*	최동환				
17	*	김동호				
18	*	지영호				
19	*	윤용섭				
20	*	백운석				
21	감 사	박용일				
22	*	이영수				

의왕문화원(www.uwcc.or.kr / ☎ 456-4994 / FAX:458-8045)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명단

연번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비 고
1	소 장	박용하			
2	부 소 장	이원규			
3	연구위원	김강호			
4	*	리진호			
5	*	정진우			
6	*	유지용			
7	*	박용일			
8	*	이희중			
9	*	이홍길			
10	*	이준훈			
11		홍종섭			
12	*	박세훈			
13	*	박해성			
14	*	황지영			
15	*	조강연			
16	*	서금석			
17	홍우	윤정배			

의왕문화원(www.uwcc.or.kr/ ☎ 456-4994 / FAX:458-8045)

발행인 : 의왕문화원장 박용하

인쇄일 : 2002년 12월 27일

발행일 : 2002년 12월 30일

인쇄처 : 영진문예사 (031-242-4022)

이곳에 실린 글을 인용할 때는 지은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儀旺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437-070 의왕시 오전동 413-1

TEL:(031)456-4994

FAX:(031)458-8045